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善益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政府의物價對策
―人爲的調節의程度如何―

一

世界列强의 軍擴競爭에依한世界的物價騰貴와 準戰體制下의彪大豫算이 齎來한 國內物價의暴騰은 單히 大衆生活에 脅威를與하는데 끄치지안코 國防計畫에도 큰支障을 生하게되고、이어서는 貿易에도 큰影響을 與하야 昻騰一路의 物價를 이대로 放任해두는데 잇서서는 終局에 인플레惡性化를 誘致할 憂慮조차 업는바이아니라고하야 組閣以來 物價對策에 苦心하야 압서 鋼材暴騰을 防止하기爲하야 鋼材關稅免除에 關한 緊急勅令을 發布한 政府는 마츰내 物價의 全面的對策을 講究하기爲하야 物價對策委員會를 設置하기로 二十三日의 閣議에서 方針을 決定하엿다고 傳하야 注目을 끄을게되엇다。

二

數日前 手形交換所大會에서「모든 經濟力은 國家的目的遂行을爲하야 全部가 綜合的으로 順應하여야할것」이라고 經濟産業의 統制强化를 示唆한 藏相의 演說과、物價對策委員會設置決定等으로 해서 市場人氣는 軟化하야 株式을 筆頭로 重要商品은 多少의 反動低落를 告하게되엇스나 亦是 이는 一時的人氣作用에 끄치는것이오、物價騰貴의 原因이 除去된것이 아니므로 다시 反撥할것은 結城藏相就任當時에 豫算縮減과 物價抑制說로 一時後退하엿든 物價가 다시 再騰한 前鑑에 비추어 거의 明白하다、即 朝銀調査 三月中의 京城都賣物價가 比前月一分二厘 比前年同月 一割一分의 暴騰을 示한것과 日銀調査三月中 東京都賣物價가 比前月四分一厘暴騰 去一月보담 二分八厘를上廻하엿다는 事實로보아 物價는 조금도 後退되지아니한것이 明白하다。物價對策委員會까지 設置하지안흘수 업섯든 理由도 또한 여기에 잇섯다고 볼수잇슬것이다。

三

政府는 問題의 重大性에 鑑하야 民間의 意見도 聽取하야 公正妥當한 具體策을 確立할터이라고하므로 今後 同委員會가 如何한 具體策을 決定實施할지 重視되는바이나 世界的軍擴競爭에依한 物資不足이란 根本原因이 解消되지아니한 今日에 人爲的調節이 어느程度로 可能할지 疑問이다。米國의 物價가 루大統領就任當時에 比하야 今年二月에는 七割一分六厘란 可驚할 昻騰이오 英國이 또한 金輸出再禁止前에 比하야 四割四分四厘의 昻騰이나 이러한 世界的物價高가 持續되는限 日本만의 單獨低落을 어찌 期待할수잇겟는가。勿論 米國은 率先하야 鋼材、銅其他의 買入中止를 宣言하고 豫算의 緊縮을 慫慂한 敎書를 내리는等、物價訂正에 苦心하는同時에 一方으로 平和會議招集을 考慮中이라고 傳하고 金買上價引下를 斷行하리란 說까지 流布되어 米國의 商品은 多少反動低商狀을 보이게되엇스므로 이것을 契機로 世界物價가 絕頂을지나게 되다면 政府의 對策과 아울러 相當한 程度의 調節이 可能할는지 모른다。그러나 米國의 物價抑制도 또한 同樣의 意味로 一時騰勢가 挫折되드라도 어느程度의 效果를 거둘수잇슬는지 疑問일것이다。

四

勿論 今日의 物價高가 正當한 需給關係에서만 온것이아니오、國際的으로나 國內的으로나 前途高를 豫想한 假需要의 擡頭로 過度한 騰貴를 誘致한點도 不無하므로 政府가 이러한 投機的思惑에 對하야 嚴重한 取締를하는同時에 貿易、通貨、爲替、財政等等 여러가지 方面으로 有效適切한 方策을 講究한다면 相當한 程度의 調節이 可能할것이므로 現階段에잇서서 政府가 當然히 取할 態度임은 두말할것도업다。다만 그方法이 行政的又는 立法的方法에까지 미치게된다면、도로혀 財界에 與하는 惡影響이 物價騰貴의 類에 比할바아닐것이니 急激한 變化를 與함과가튼 手段을 取하지안코 所期의 目的을 達할수잇는 方策이 容易할는지 甚히 疑問이다。戰爭이란 浪費를 現實로 行하지안는限 物價의 急激한 暴騰도 勿論업슬것이어니와 物價騰貴의 根本原因이 除去되지안는限 急反落도 不許하는 現實事情下에 政府의 物價對策이 如何히 展開될는지 자못 注目되는바이다。

集團的安全保障案 極東諸國에提起?
中國代表孔祥熙氏가倫敦간機會에提唱乎
但、蘇聯各紙의報道

【伯林二十三日發同盟】蘇聯政府는 日獨防共協定에 對한 抗爭策에 腐心한다고 하는데 莫斯科來電에依하면 蘇聯各紙는 廿三日紙上에서 中國代表孔祥熙氏가 英帝戴冠式參列次로 倫敦에 赴한機會에 極東에잇서서 集團的安全保障體制案을 提案할目的를 大大的으로 報道하엿다 右提案에는 極東에잇서서 平和愛好各國은 全部參加하기를 要請하려고하는데 蘇聯各紙는 右提案이 日本政府를 假想敵으로한과如한 觀測을 나리고 또同案에對하여는 蘇聯政府는 支持를 不惜한다는것을 暗示하고잇다

宋哲元氏와 記者團一問一答

【北京廿二日發同盟】二十二日 冀察政務委員長 宋哲元氏와 日本人記者團과의 會見에서 宋哲元氏는 說頭 日中兩國의 問題는 兩國自身이 이것을 解決할것이고 絕對로 第三國의 介入을 排除할것이다 中國의 破産業은 列國에比하야 甚히 落伍狀態에잇다 이點은 日本産業과 平等互惠의 立場에서 長短을 相補할것을 必要로한다 兩國의 責任者、智識階級이 相互의 實情을 잘 諒解하야 共存共榮의 實을 擧하면 東洋平和는 期待할수잇다라고 前提한後 如左히 質疑應答이 잇섯다

問、最近川越大使와의 會見에서 汪精衛、王寵惠兩氏는 政治問題와 經濟問題를 倂行할것이라고 述하얏는데 이에對한 貴見如何

答、余는 個人으로서 日本의 問題는 民衆의 一致한 希望과 國家의 全體的利益에 基하야 局部的으로 事實上의 提携를 實現할것이라고 信한다

問、貴下는 北中의 責任者로서 政治的問題 即冀東、察北等의 解決을 經濟提携의 先決條件이라고 보지안는가

答、余는 如斯한問題에 何等拘泥할것업시 可能한 範圍內에서 實行할생각이다

問、北中今後의 日中關係에 對한 貴見如何

答、余는 空的議論을 排擊코 事實에 基하야 行하고저한다 現在東亞에는 共產軍及 共產黨이라는 日中共同의 敵이잇다 이것을 如何히하야 絕滅할가가 日中間最大의 問題이다 冀東政權解消라든가 察北六縣還附라든가 하는것은 이問題앞헤는 小問題이다

그리고 宋哲元氏는『過般佐藤外相의 議會演說로써 日本의 退却이라고 稱하야 進攻的態度를 取하고잇는 中國一部의 言論에 對하야는 全혀 一顧의 價値도업는 認識不足의 言이다』라고 述하야『只今이야말로 相助相扶하야 東洋의 平和는 邁進할때다』라고 結論하엿다

義宮殿下 宮城에御歸還

【東京電話同盟】義宮殿下께서는 去一月三十日以來 葉山御用邸에 御滯在하시다가 三個月만에 二十四日 宮城에 御歸還하시엿는데 一層御健康하시다 殿下께서는 御機嫌御麗히 入江太夫 大金事務官以下 御養育掛等과함께 午前十時三十五分 葉山御用邸御出門 同四十九分 逗子驛發 電車로 午前十一時四十八分 東京驛着 御待하얍시는 御兩親陛下께 御歸還하시엿다

秩父宮同妃殿下
二十四日倫敦에御移轉

【倫敦廿三日發同盟】秩父宮同妃兩殿下께서는 二十四日 午前御宿舍하이드·파·호텔에 드시엇는데 今後의 主要한 御日程은 如左하다

四月二十六日 日英通商關係委員會主催의 사보이·호텔의 歡迎午餐會

同 二十七日 스위스링卿夫人主催의 奉迎午餐會 午後八時부터 倫敦市長主催의 만숀·호텔의 晩餐會 英國皇弟켄트公殿下도 御出席하신다

同 二十八日 午後五時半 하이드·파·호텔에서 英國少年團國際事務局常務理事長마르틴氏에 賜謁

同 二十九日 午前十時半 天長節拜賀式 正午에는 牛津大學御在學時代의 御學友어스터卿令息과 午餐을 함께하시고 吉田大使御招待의 晩餐會에 御出席

五月六日 스키―俱樂部春季晩餐會에 名譽會員으로서 御出席

同 十日 夜英國下院議長피츠로어氏主催의 앗드홈에 御出席

同 十一日 午前牛津大學講堂에서 名譽博士號를 바드신다

同 十三日 墺太利公使館의 戴冠式리셉숀에 御出席 同夜는 名테나로서 有名한 라바하―氏의 獨唱이잇다

同二十五日 칸다할·스키―俱樂部主催의 晩餐會에 御出席

同二十七日 圓卓騎士俱樂部主催의 晩餐會에 나가시게되엿다 同俱樂部는 日本海軍과 緣故가 깁고 죠지五世陛下의 戴冠式에는 故東鄕元帥가 賓客으로서 出席하엿다

秩父宮殿下께서는 現在學術振興會總裁로서 學術振興에 盡力하시는바 學術振興會理事長櫻井錠二博士는 英國學術研究會에 出席하고잇슴으로 同博士는 戴冠式後 劍橋大學、牛津大學其他各大學의 研究所를 비롯하야 채싱톤科學博物館 함프스텟드醫科學研究所、天文台等을 御案內하여드리게되엿다

伯林羅馬樞軸에 墺太利를結合
쵀코와의政治關係樹立反對
쥬紙主筆카氏의豫斷

【羅馬二十三日發同盟】伊太利政府의 半官機關紙 쟈르나―레·데·이타리아紙主筆 가이다氏는 二十三日夜 베네치아會談의 成果에 對하야 左와如히 豫斷하엿다

못솔리니首相이 今回會議에서 伯林、羅馬樞軸을 强化하는 見地에서 獨逸政府의 立場을 支持함에 全力을 傾注하고잇는바 이事實에 徵하면 墺太利國內의 나치스는 近近祖國戰線과 더부러 責任을 分擔하도록 要請하고 墺太利首相 폰·슈슈닉氏及 체르마―드次官을 援助하야 나치스와 祖國戰線과의 間에 意見衝突이 發生하는 境遇에는 居中調停을 하기爲하야 祖國戰線內에 나치스를 合流시킬것이다 이것은 要컨대 나치스의 墺太利內政參劃에의 第一步에 不外하다 못솔리니首相은 羅馬議定書와 羅馬伯林樞軸과의 結合을 企圖하고 墺太利가 프라―그와의 政治關係를 樹立하는것에 對하야는 强硬히 反對하엿다 그러나 羅馬伯林樞軸結合에 當하야 못솔리니首相은 墺太利國內의 나치스의 參政宗敎問題에 對하야는 保留하고잇스므로 墺太利國에 對하야 獨伊의 對立은 업슬것이다

永代借地制度解消 御諮詢手續을執行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二十三日閣議에서 永代借地制度에 關한 左記四件을 決定하고 即時 樞府에 御諮詢奏請、手續을 取하엿다 樞府에서는 村上書記官長下에 準備審査를 한後 大藏省官制改正案과함께 來二十八日 定例本會議에 上程할 豫定이다

一、永代借地制度解消에 關한 日本國伊太利國間協定公文交換의件
一、同上日本國和蘭國間同上
一、同上日本國丁抹國間同上
一、同上日本國葡萄牙國間同上

蘇外交機關動員 孤立打開에努力
防共協定弱體化에全力傾倒
獨逸에妥協策提案?

【倫敦二十三日發同盟】莫斯科來電에依하면 트로츠키―派의 反革命工作을 契機로 異分子의 逮捕가 繼續되여 蘇聯邦의 情勢는 相當히 不安을 孕胎하고잇는것은 掩蔽할수업다 스탈린共產黨書記長 모로토프聯邦人民委員會議長等도 三月初旬黨中央執行委員會幹部會席上에서 明白히 政治工作의 缺陷을 承認하고 反革命運動이 各産業部門의 心臟部에 侵入하고잇는 旨를 述하는同時에 政治經濟再建의 必要를 力說한바잇더니 今番蘇聯邦當局은 外交機關을 總動員하고 國際共產黨의 諸機關을 活用하야써 外交上의 孤立打開에 努力하고잇다 黨最高機關幹部會에서는、過般來 極秘裡에 重要會議를 開催하고 各國共產黨에 잇서서 트로츠키―派의 勢力驅逐策 日獨兩國間에 成立된 反共協定의 抗爭策 팟시스트·뿔럭의 打倒策을 檢討하고잇다하는데 他方 東京駐箚유레네프大使가 去二月二十一日 莫斯科에 歸還한當時 안카라駐箚카라한大使 카플駐箚스키―비르스키―大使 外蒙駐箚타이로프外交代表 레헤란駐箚체르닉大使等을 招致하야 反共協定에 對抗할 外交方策을 協議한것은 숨길수업는 事實이라 고잇는다 特히 反共協定에 對하야는 日獨兩國의 蘇聯包圍策이 안닌가 曲解하고 兩國의 親善接近을 頭痛꺼리로하고 內部的工作으로 經濟計畫挫頓의 原因을 全部反共協定에 돌리고잇다 따러서 蘇聯政府의 外交政策은 바야흐로 反共協定의 弱體化에 集中되고잇는 形勢로 爲先獨逸에 對하야는 獨逸人三十四名의 釋放을 口實로 局面打開를 企圖하고 다음提案을 提出할 用意가잇다고 傳한다

一、反革命派로서 逮捕된 獨逸人全部의 釋放
一、獨蘇兩國經濟關係의 復活

二千六百年記念 奉祝會成立

【東京電話同盟】紀元二千六百年記念奉祝會創立委員會는 廿四日 祝典評議委員會閉會後 開催하고 奉祝會會則을 決定한後

一、總裁에는 皇族을 奉戴할것
一、副總裁에는 內閣總理大臣을 推薦할것
一、會長以下役員에 對하야는 副總裁의 推薦에 一任할것

을 決定하엿다 그리고 記念奉祝會가 正式으로 成立되엿스므로 同會는 近近組織을 고치여 財團法人으로하고 經費一千萬圓으로써 橿原神宮境域및 畝傍東北陵參道의 擴張整備 神武天皇聖蹟調査保存 顯彰國史館建設 日本文化史觀의 編纂出版等의 奉祝記念事業等의 實施에 着手할 豫定인데 右經費中 五百萬圓은 國庫로부터 補助하게되엿다

調整交涉再開는 歸國後協議決定
國交修好는相互接近外無道
記者團에川越大使談

【上海廿三日發同盟】川越大使는 二十八日 上海出帆上海丸으로 歸國하기로 決定하엿다 同大使는 二十三日 官邸에서 記者團과 會見하고 日中國交調整交涉再開問題를 中心으로 左와如히 말하엿다

今回의 歸國은 政府의 命令에 依한것이다 何時에 歸任할는지는 東京에가 보지안코는 알수업다 日中國交調整交涉을 何時에 再開할는지 또무엇을 提案할는지는 歸國後에 協議決定할터이다 今後의 對中交涉에 對하야 自己의 腹案은잇스나 그것은 只今말할수업다 三中全會後 國民政府의 對日態度가 硬化되고 每事에 强硬態度를 露骨的으로 表하다고 傳하지만 그러한 事實은업다 日中國交를 調整함은 中國에도 必要한것임으로 卑細히 消極的態度를 取하는데 곳치지안코 나아가 現狀을 打開하려하는 意向이 强하다 그러나 國民政府가 이니시에티브를 取하야 交涉再開에 先出할 模樣은 보이지안는다 此際 日中雙方이 모다 充分考慮할點은 國交調整이라는것은 서로 相對國을 가진바임으로 一方의 意思만을 貫徹식히는것은 協調를 不可能하게하는것임으로 雙方의 希望을 調整하야 相互接近하는外에는 他途가업다 中國側은 冀東의 解消、察北問題等 從來의 北中現狀을 打開하는데 熾烈한 希望을 갓고잇스나 海關課稅問題에 對하여는 어느程度로 讓步할 意向이 잇는듯하다 余가 歷次 王寵惠氏에게 말한바도잇고 中國의 가장 必要한것은 中國이 日本의 生存乃至生長에 必要한 客觀的情勢를 正當히 認識하는데잇다 그리고 日本도 中國의 統一傾向과 國民政府의 生長을 正確히 認識하고 國民政府의 實體及 各部門의 把握을 徹底的으로 研究할이 第一必要한바 中國의 統一促進을 充分把握함이 先決이므로 信한다 이러한 基礎가업스면 國交調整의 길은 업는것이다 經濟提携等은 其後의 問題로 貿易의 衰微는 반드시 悲觀할 必要는업다

北中經濟提携
파氏、宋氏와會談

【北平二十四日發同盟】英國輸出信用保險局駐中代表 파트릭氏는 二十三日午後 來平하야 二十五日午前 宋哲元氏를 訪問하고 北中經濟提携에 對하야 重要한 意見交換을 行하엿다 同氏는 約一週間 北平에 滯在하면서 專혀 金融界及 北中現情에 對하야 調査할터이라는데 冀東特殊貿易 冀東銀行紙幣發行等 冀東政府를 中心으로한 經濟調査가 그主되는 目的이라고한다

越界路租稅問題 妥協解決企圖

【上海二十三日發同盟】上海共同租界越界路의 徵稅權委讓에 關한 上海市長代理兪鴻鈞氏와 工務局事務總長펫센덴氏와의 假協定締結을 契機로 數年來의 懸案이든 越界路問題는 再次表面化하야 市政府、工部局 日本側이 三巴로되여 紛糾를 繼續하고잇다 今回의 協定骨子는

一、工部局은 越界路에잇서서 日本政府의 徵稅權을 承認할것
一、市政府는 越界路에잇서서 工部局의 諸施設에 對하야 徵收한 稅金의 一定比例를 工部局에 支拂할

언데 從來旣成事實로 租界同樣으로 取扱하는 越界路의 行政權을 市政府에 返還할 重大스텝으로 近來法權撤廢소리가 各方面에서 러나고잇는 此際 問題의 解決如何로는 完全한 法權 解決을 指目하는 中國 側으로 하여금 더욱 警察權 其他의 問題로 工部局에 對하야 攻勢를 取할것은 必致로 어며 電信電燈等 租界에 對하야 獨自의 會社를 設立하고 抗爭을 繼續하는 現狀인데 이問題에 利害關係가 깁흔 日本으로서는 明確한 態度를 表明하야 積極的 解決을 圖할 必要를 感하게되엿슴으로 近近外務省의 回訓을 기다려 具體策을 確立하고 積極的으로 本問題의 根本的解決에 進出하게되엿다

人事·集會

▲尹弘炳氏(京畿道會議員立候補) 人事次來社
▲崔鳳榮氏(濱江省寧安縣副參事官) 敎育視察團員引率入京事次 二十四日本社來訪

中國建設五個年計畫의 一部實現着手
貴州雲南間連絡鐵道

【上海二十四日發同盟】國民政府는 三中全會에서 決定한 中國建設五個年計畫의 實現을 期하야 實行에 옴기고잇는 滇黔(貴州雲南)連絡鐵道도 計畫의 一部에 屬한것으로 同鐵道敷設에 關하야 過般來 國府에서 貴州雲南兩省政府當局間에 協議가 進行되고잇섯는데 最近交涉이 成立되야 今年內에 起工키로되엿다 이滇黔鐵道는 全線山岳地帶를 뚤코나가는것으로 技術的으로보아 中國에在한 鐵道建設上 가장 困難視되고잇는것인데 이미 英國側援助로 雲南、貴陽兩地에서 測量을 進行하고잇고 中國當局은 二十四日 今後六個月以內에 測量을 完了하야 年內에 起工하고 四個年으로 全線의 敷設을 完了할 豫定인旨를 非公式으로 發表하엿다 雲南省政府는 富滇新銀行을 省政府에서 設立하야 頭取繆嘉銘氏를 代表로 國民政府鐵道部와 折衝케한 結果 國府鐵道部와 雲南省政府와의 合辦으로된 滇黔鐵路特許股份有限公司(株式會社)를 組織하야 鐵道建設을 進行키로되엿는데 建設費는 約一億元을 要한다고한다 鐵道는 貴州、雲南兩省에서 半額出資、殘餘半額는 英佛借款에 依하는것이다 그리고 右滇黔鐵道는 建設五個年計畫의 第一期事業에 屬하는데 第二期事業은 貴陽(貴州省)、重慶(四川省)間及 貴陽、長州間의 鐵道敷設이 豫定되여잇다

民間人才를拔擢
物價對策委員會設置決定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今回全般的物價調節을 前提로하는 物價對策委員會를 設置하기로 決定하고 널리 民間에서 有能한 人士를 委員에 銓衡하야 全般的으로 物價調節을 可及的速히 實現시키려한다 그리고 委員의 一人에는 池田日銀總裁가 選定될것은 거이 確定的이다

足柄「아덴」서發驪

【아덴同盟特派員廿三日發】軍艦足柄은 廿三日 午前九時 아덴港에 入港하엿다 小林司令官과 武田艦長은 午前十一時上陸 總督에 데리―氏를 公式으로 訪問하엿든바 데리―氏의 答禮使가 來艦하엿고 또 海軍根據地指揮官等이 서로 前後하야 來訪하엿다 午後七時에는 陸上에서 小林司令官主催의 總督招待晩餐會가 잇섯고 下士官兵等은 廿三、四兩日 半舷式 上陸하엿는데 新嘉坡出港以來 十日만에 그리운땅을 밟게되엿스나 沙漠과 岩山으로 全然殺風景한 거리다 足柄은 二十四日午後四時 아덴港을 出港하야 멜리島에 向할터인데 어미六千五、六百浬를 航破한 航海는 어미半以上에 達하엿다

企畫廳의五月實施 아직은困難視

【東京電話同盟】去十九日閣議에서 決定한 內閣企畫廳及 中央經濟會議의 官制는 各其法制局에서 起草中이든바 마침내 二十三日午前十時부터 開催할 定例閣議에 附議하야 正式決定한後 樞密院에 御諮詢手續을 取하기로되엿다 그리고 企畫廳長及 中央經濟會議의 議員에 對하여는 이미 政府에서 人選에 着手하야 五月上旬에는 發令될터인데 中央經濟會議議員의 數는 따로 限定치안코 官制에도 數를 明示치안코 民間權威者의 登庸에 만흔 餘裕를 남길方針이다 그리고 企畫廳에 關한 政府의 最初의 方針은 五月初부터 實施할 豫定이엿스나 樞府方面에서 企畫廳創設의 目的及 權限 特히 企畫廳과 大藏省主計局과의 關係 企畫廳과 法制局과의 關係等에 對하야 아직도 자못 疑問을 가지는側도 잇스므로 相當한 論議는 免키어려울것이오 五月初의 實施는 到底히 困難視된다 그리고 情報委員會의 改組擴充案에 對하여는 아직 政府部內에 完全意見一致되지못한點이 잇스므로 二十三日閣議에 附議치안키로되엿다

부라질各國移民 配定數發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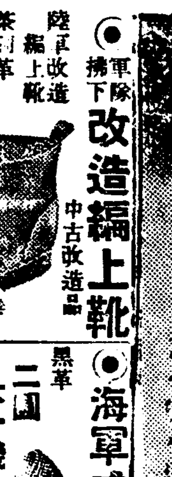
【리오·데·자네이로廿三日發同盟】부라질勞働相은 二十三日 過去五個年間의 移民總數의 二分을 入國許可하는 聯邦憲法條項에 基하야 一九三七年度各國移民配當數를 發表하엿다 日本移民配當은 三千五百四十六名에 達하야 一九三六年度에 比하야 幾分增加하엿다 右增加의 理由는 前年度入國數의 二分을 加算한것및 一九三六年四月發布의 勞働省令에 依하야 十四歲未滿의 少年은 移民이라고 看做되지못함으로 一九三七年度의 日本移民入國數는 結局六千人前後에 達한다고 推算된다

大發見 開運法
◎運は印章に有るの理論は開運の合るなり 印章が惡ければ一生涯不幸で終る 成功を望む人は先づ合理化印章より
(說明書送呈)
幸運判 凶惡判 角判
名古屋市大池町 太陽印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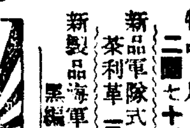
優勝旗と鯉幟
カタログ送呈
名古屋市中區末廣町本店
伊藤旗店
電話本局〇一〇二番

◎軍隊拂下改造編上靴 中古改造品
陸軍改造編上靴 茶革A品一足 二圓三十錢 特品一足 二圓七十錢
新品軍隊式編上靴 茶利革 三圓八十錢
新製品海軍式陸戰隊用黑編上靴 二圓九十錢
◎海軍式水兵短靴 新製品 黑革 二圓六十錢
◎海軍拂下水兵黑革短靴 中古改造品 A品 二圓四十錢
ハガキにて御注文次第代引小包にて發送
名古屋市中區清水町局前
卸問屋 松山合名會社
電話東六二二一九 振替名古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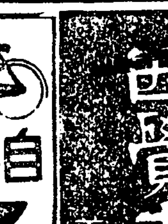
西覺寺のせんき藥



自轉車タイヤー
自轉車用タイヤー特賣
特用級ズツク六本 (各種共・六吋・八吋・二種)
特價タイヤー 一組二本 金三圓七十錢
B級チユーブ 一組二本 金八十八錢
B級タイヤーズツク八本一組二本 金四圓八十錢
B級チユーブ 一組二本 金八十八錢
A級タイヤーズツク九本一組二本 金五圓五十錢
A級チユーブ 一組二本 金一圓十錢
御注文はハガキで御申込下さい
自轉車各種カタログ進呈
名古屋市東區魚町一 近藤商店 電話東九〇二〇番



◇進歩せる臭抜き新裝置 (瓦斯・電氣より便利・經濟・安全)
マルハチガソリン瓦斯器
家庭向普及用代理店募集
名古屋市中區南武平町 丸八製作所
振替名古屋四番・電話中三二四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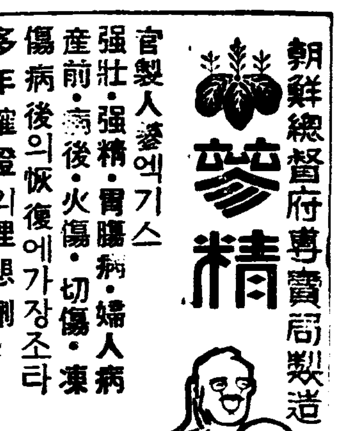


最新型實用堅牢製靴特賣
國產調練靴
優良黑ボックスを用ひ底は軍隊靴同樣堅牢無比 革底牛革打ち 金鋲さ締鐵 型に金具打ち込 み耐久無比 强い安いで 大評判
青年團、學生、消防手用に最適
新案出縫黑編上 大特價 一足 金三圓八十錢 (十文より十二文まで同値)
御注文次第代引發送 月刊カタログ進呈
鬼三枚底革靴
最新發賣 三枚底澁ボックス 最新機械製
紳士、學生 勞働用として 大好評
鬼三枚黑編上 大特價 一足 三圓八十錢
鬼三枚黑短靴 大特價 一足 三圓五十錢
名古屋市東區千種通り(野輪電停前) 加藤ゴム營業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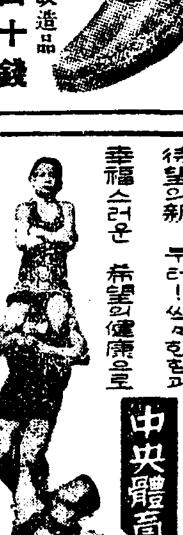
株式 賣るか買ふか素人の意見では儲らぬ
玄人豫測家の適中意見を見よ
本紙は全國有名相場家數十社の當り屋意見を滿載し月五円で毎日發送
見本呈
名古屋中京 東京市日本橋兜町
中京經濟新聞社

고추가루 都賣
金千壽商店製粉部
時價表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슴니다

朝鮮總督府專賣局製造
蔘精
官製人蔘엑기스
强壯·强精·胃腸病·婦人病
産前·産後·火傷·切傷·凍傷病後의恢復에가장조타
多年確證의理想劑
連續常用하면健康이增進함
·二〇瓦入三日分定價一圓十錢
·類似品이잇다官製文字에注意
·申込次第文獻送呈
全國著名藥店百貨店에잇다
發賣元 京城長谷川町京城ビル
朝鮮總督府專賣局製造 蔘精元賣捌株式會社



中央體育研究所
現代的體力增進法第三版出來
待望의新 무러!씩々한힘과 幸福스러운 希望의健康으로
漢城圖書株式會社 發賣



異域의哀詞 (19408) 王平·全玉
寧邊歌 (19409) 西道雜歌 郭山月
京畿雜歌 郭明月
포리도―루·레코―드

肋膜病專門
海雲內科醫院
京城貫鐵町二二八(鍾閣後) 電話光三六六番
醫師 李圭暐

全北道議員立候補者 元炳喜
右 全羅北道會議員으로서 最適任者로 認定하고 玆에 推薦함
完州郡有權者有志一同

忠南道會議員 立候補 柳冀暎
今般道會議員改選에際하야 吾等은 現在道議員 柳冀暎君의 再選을 切望함
君은 優越한 人格과 一般道政에 對하야 徹底한 理解者로 前般官選道議員을 歷任하고 同郡牙山金融組合長으로 二十餘年間 金融界에 多大한 活躍을하옵고 今般同郡靈仁金融組合長으로 當選된 地方에 信望과 政見이 聰明한 右柳君을 推擧하오니 有權者諸賢의 絕對支援이 잇기를 바라와 玆에 謹告하나이다
牙山郡有權者各位
同郡有志一同白

꽃은 벌서落花!

창경원의 야앵은 개시한지 일주일재되는 이십사일밤에도 봄비가 부실부실 나림을 무릅쓰고 모혀드는 군중은 자그만치 일만팔천여명이라고한다 꽃은 이제 필대로피여 봉오리하나 보이지안는데 바람이슬적슬적 지나는때마다 꽃입파리는힌여시 하나둘 땅우에 떠려진다 떠려지는 꽃과 나리는 봄비를 등에실고 그만흔 사람은 여전히 꼬체취하고 술에 얼근히피여서 그네은 러전을 좇다는듯이 헤매고잇섯다 (사진 상은 만개한창경원 벗꽃하는 연예장압헤모인 구경군들)

약기든봄 고개넘어 꽃지고新綠으로!

七十萬市民의總動員할四月最終日曜日에 天氣豫報는曇、小雨!

여십오일은 꽃의사월로부터신록(新綠)의 오월로 넘어가는마지막일요일이다 누런케、붉게 희게 색색으로 어우러저피여 그들의 요염한자태를 서로다투는 개나리 진달레 벗꽃、살구꽃등도 벌서한고개가지나 어미락화되고 또락화가되기시작하엿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의섭리(攝理)압헤 소리업시 떠러지는 락화회(落花會)밤이며 자연의꽃과 함께 인생의꽃을 구가(謳歌)하기도이 봄에는 오늘일요일가아마 마루터인듯십다 일요일이아닌 보통날에도밤낫으로 수만명의 꽃구경군 이동원되는 요새이니 오늘일일이야 말로 칠십만장안이 꽃구경으로 총동원이나 되지안흘까? 그러나 조선의 날세는별안간변하는일이 만허 예보만을 그대로 신용할수도업지마는 모처럼조흔 오늘 일요일에는 날이흐리며 비가부슬부슬내릴듯십다한다 저기압이 서백리아동쪽에와상해동쪽 구주동남편등세곳에잇서 모두 동쪽으로진행하고 고기압도만주서부와 일본동해상에 각각퍼저잇서 저긔압이 동으로진행하는관계상 조선은 대개호리고 경성지방에는 소우가내릴념려가 잇다는것이나 그다지 큰비는오지 안을듯하다하니 비를좀 마지면서 지는꽃을보는것도 참으로봄다운 정경일것도갓다 터구나넘어가는 봄을애기는 안타까운마음은 여간부슬비쯤이야 개념할배못되겟지?

青年自殺未遂 原因은失戀?

어십사일 오후다섯시경에 시내 봉래정(蓬萊町)사정목 이백구번지 산중에서 어떤청년한명이 독약을먹고 자살을하려고 신음하고잇는것을 서대문서원이 발견하고 곳 적십자병원에 데려다가 응급치료를한결과 겨우생명은 건질모양이라고한다 그는황해도연백군호남면의현리(延白郡湖南面義現里) 송병조(宋柄祖)(二一)라는 청년인것만이 판명되엿스며 그의 아버지에게한 유서한장밧게업는데 그자살하려던원인은 실연인듯하다고한다

漁夫의利는 鐵道局의收入으로

서울봄마지의關門 京城驛旅客激增

시골서는서울로 서울서는시골로! 一日乘降客二萬突破

서울꽃시절의 가장호화로운 창경원(昌慶苑)의 야앵(夜櫻)이 시작되엿다 서울꽃색을 관광하는것은 지금도 이제한참때가되여 지어 제일조흔탓으로 각지에서꽃구경꾼들이 물밀듯이 모혀들어 지난 십팔일부터는 봄서울 창경원의밤은 시골사람 서울사람할것업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잇다 이관광경성의덕분으로 부르는배를 어루만지는것은 철도국이다 경성역에 오르내리는 손님들이 지난 이십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쩍늘어 하로에 단체가평균오십단체나되며 매일일만사천명에불과하던 승강객이 二만명을 돌파하여서 점점 더늘어가고잇다 이십삼일에는 경성역에서 일만사백륙십오명이 승차를 하엿고 일만이천일백십일명이 차를내렷다 이날하루동안의 수입이 일만사천칠백륙십사원이라고 한다 이와가튼 엄청난 수짜가 래달말까지는 계속되리라고하니 그총수와 총액이 헤아릴수가업다 경성역에는 경도(京都)로 별부(別府)로 해운대(海雲臺)로 온양(溫陽)으로 봄손님의 마음을 부르는『포스타』가 찬란히늘어잇고 관광일본(觀光日本) 관광제(觀光祭)등의 일본관광련맹(日本觀光聯盟)이 외국앙빌들을 끌어당기는 그림이 휘황하다하여 런 서울벗꽃구경으로 시골사람의 국사람이 모혀들고하이킹등으로 오회지로 또는시골의 봉경지를 차저서 떠나가는 관광려객들로 말미아마 잡답하야경성역에는 새가지 꽃소식과봄마음이 넘치 오흐르고잇다

滿洲國張總理昨日午後離京

지난이십일일 조선을방문하고자 입경한 장총리(張總理)는 남총독(南總督)소기군사령관(小磯軍司令官)과의회견을비롯하야 전후사일동안관민유력자방면과 간담을하고 또조선각방면시설의상황을시찰한후 이십사일오후세시오십분 경성역발로조선을 거처 귀국의길에 올랏다 역두에는 남총독、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소기군사령관、총독부각국과장과、마침체경중인 각도지사、군부제장성(將星)기타관민유력자다수의전송이잇섯다 (사진은 경성역에서 장총리출발하는광경)

業績不振으로 百餘社員淘汰

退職金으로廿八割을支給 "酒販"會社解散狀態

시내락원정(樂園町)에잇는 조선주류판매회사(朝鮮酒販賣會社)에서는 이십사일오후두시에 사원일백십명의 도태를 발표하는 동시에 퇴직위로금 이십팔할오분식을 주는사령을 교부하얏다 이와가티 백여명의사원을일시에 도태하는리면의 사정을드른즉 그회사는창립이래업적이부진하야 최초가 양조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 일할칠분을 징수하야오든것을 그동안 수차인하를 거듭하다가 이번에 최후로 또인하 하야 단이분을 징수하기로 결정함에따러 영업의 규모와 범위를 대축소하지아니할수업는 운명에빠저 마침내 어쩔수업시 일백십명의사원을 정리하게된것이라한다 회사당국으로서는 비록어쩔수업는 사정으로인하야 사원을 그와가티 정리는하얏스나 그들의 생활장래를 념려하지아니할수가업서 회사정관까지 무시하면서 적립금과전회등의 동산까지처분하야 약일만칠천원의 현금을준비하야가지고 여십팔할이란 퇴직금을주기로한것이라한다

七十老人縊死

【廣州】광주군락생면 구미리오십이번지에사는 김선경(金善敬)(七〇)은 사월십륙일 오전세시경문압대초나무에 목을매여 자살하엿다는데 그원인은 일전에벼씨박구는문제로인하야 그며누리와사소한 언쟁이잇섯든관계인듯하다고한다

情夫家에放火

【鎭南浦】지난십일일 오전세시사십분경 진남포비석리(碑石里) 김명락(金明洛)의집 연돌에서 불이나서 초가일부를 태워 십원가량의 손해를입엇고 지난 이십일 또가튼장소에서 불이나서 대소동을일으키엿슴으로 의아한점이잇서 진남포경찰서에서 내용을 조사하여본결과 비석리 김게주(金桂柱)(二〇)라는 여자가 약삼년전부터 김명락과가튼동리 림근식(林根植)(三一)이란 남자와 정을통하여오다가 최근 림이다른여자와 정교관계를맷고 자기를 배척함으로 질투심이 폭발되여 그와가티 두번이나 방화하엿든것이 판명되엿다는바 김게주는 룡강군지운면안성리(池雲面安城里)방면에 도망하여잇는것을 지난이십이일 체포하야 취조한결과 일체를자백 하엿다한다

失家兒만十二件

어른들賞春에어린이受難

창경원꽃구경때문에 길일흔아이들이 부쩍늘어서 이십사일밤까지 시내종로서에들어온 수사원만해도 열네명이나되는데 그길일흔아이의일흠은 다음과갓다 ▲崔重順(一二)▲朴貞奎(二)▲李永善(七)▲韓仁根(八)▲金鍾國(六)▲金龍達(六)▲孫谷國(一〇)▲孟玉子(七)▲金玉子(七)▲朴龍洙(四)▲洪承玉(三)▲吳世鎭(一〇)

列車에서跳降 鐵道局員重傷

이십사일저녁 아홉시 삼오분 인천(仁川)에서 룡산역(龍山驛)에 도착한렬차가 경성역으로떠나려할지음에 타고가든 철도국경리과(鐵道局經理課)고원 목야구지(牧野久崎)(二一)가 갑작히뛰여나리다가 그만 차에 치여서 중상을 밧고 곳 철도병원에입원치료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死者七名·船舶流失13 田畓流失八百町步

家屋全半潰、流失等四十餘戶 宜寧郡下風水害決算

【宜寧】경남의령(慶南宜寧)지방에서도 봄의예습래한 미증유의대폭풍우로인하야 피해가 막대하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작년여름의 풍수재로 참혹한 흉작을입어 일반농민들은 지난겨울부터 식량이결핍되여 생도가 막연한데가 설상가상으로 뜻아니한 참재를보게되여 춘궁기에잇는 일반농민들의생도가 막연하다는바 군당국에서 피해상황을 조사한바에의하면 다음과갓다고한다

▲死者七名 ▲家畜死二 ▲住家流失四 ▲同全潰一八 ▲同半潰二三 ▲同床上浸水六七 ▲其他建物全潰一三 ▲同半潰二一 ▲同床上浸水一三 ▲船舶流失一三 ▲同全潰三 ▲畓流失一五八町步 ▲同埋沒四〇八町步 ▲同浸水六〇六九町步 ▲田流失四四町步 ▲同埋沒一七三町步 ▲同浸水一七、二九九町步 ▲道路決潰六〇米突 ▲破損八七一米突 ▲同埋沒五〇米突 ▲橋梁破損四個所 ▲堤防決潰二六六五米突 ▲同破損二八、二六三米突 ▲工作物被害推定額二九、五六〇圓 ▲要救助戶數八七戶

暴力團一黨四名被檢

【淸州】지난십칠일부터 청주에는벗꽃이 만개되여 유민은모다 꽃노리로 운집하엿는데 이인파속을타서 폭력단이 출몰하야통행하는 부녀자에게 봉변을주며 남자에게는 폭행을 하고잇섯다함은기보한바어니와 청주서에서는그자들을 엄탐중 지난이십이일화천정(和泉町)정모(鄭某)(二九)와 남천정(南川町)곽모(郭某)(二九)와 박모(朴某)(二〇)사창리(司倉里)김모(金某)(二〇)등일당네명을 검거하야 방금 엄중취조중이라는바 개중에는 청주군청모기수도 끼여잇다고하며 또지난십칠일 오후다섯시경청주군근방에서 청주군청원 정모에게 일본내지인사오명이 달려들어 유도(柔道)로 함부로미려처서 늑골(肋骨)한개를 부러트려 치료삼주일의 중상을 이피엿는데 청주서에서는 방금이자들의 정체를 엄탐중이라고한다

怠業氣分益擴大 東京市電은對策凝議

【東京電話同盟】몇칠전부터 게속되여오든 동경시전종업원들의 태업(怠業)상태는 이십사일에이르러 더욱확대되야 이십사일아침 첫차부터 태업기분이 농후해지며 운전대수도 평상시의반수이상확할이줄고 또스피드도반감되야 시민들도 더딘전차에다 기를 실혀하는경향을 보임으로 동경시전기국에서는 방금그대책을구수밀의중이다

妙齡의女子가 自動車서急死

原因은心臟痲痺

【洪城】십사일오후 세시사십분경에 충남홍성읍 경남자동차부 태안행자동차안에서 무참히도급사한 묘령의부인이잇다——그는 서산군고북면장요리(長要里)에사는 리천복(李千福)의딸(二〇)로멋해전에 홍성군홍북면대인리(大仁里)임치강(任致康)의 둘재아들갑순(甲淳)에게시집가서 이래호화로운생활을하든바 금번친정에를가랴고 시어머니와함께 자동차부에와서 차표를사가지고 차에올나안지면서 그만아모말도업시죽어버렷다 이급보를듯고달려온 제중의원의사 장동혁씨의 응급진찰이 잇섯스나 이미절명되엿다함으로 림검하든 경관은 시도립의원으로 달려가서 진찰케 하엿스나 역시효력을내이지 못하고 마럿다는대 심장마비로 그가티 급사한것이라는바 사체는그의 가족에게인도되엿다 한다

電線竊取하라다 電柱서墜落慘死

【蔚山】지난이십일 오후십일시경 주소부정한 전과삼범 전북 진안군 안천면(鎭安郡顏川面)출생인 문명선(文明善)(三一)은 경남 울산군 서생면 석전리(蔚山西生面石田里)부근에 잇는고압선(高壓線)을 절취하고저 놉히 삼십척되는 전주(電柱)에 올라가다가 떠려저서 즉사한것을 통행인이 발견하고 관할경찰서에 고발한바되여 동서원이 현장에 출장하엿다라고한다

松旨里에移轉反對 二百餘住民殺到

梁書記와衝突하야亂鬪까지 三浪津金組問題擴大

【密陽支局特電】기보한바와가티 삼랑진금융조합(三浪津金融組合)이전문제는 지난이십일일 평의원회(評議員會)에서 송지리(松旨里)에 옴기기로 결정되매 현소재지인 삼랑리(三浪里)주민들은 이야말로 지방발전상의큰문제라고하야 그 이전반대운동을 맹렬히계속하는일편 각요로당국자에게 진정한바잇섯는데 지난이십일일밤 열한시쯤에 삼랑리주민 남녀약이백여명이 리사(理事)에게 또다시 진정하려고 금융조합으로 몰려갓스나 그때 마침 리사는 밧그로나가서 그곳서기량모(梁某)와 어야기끄테 량모가 몹시마젓다고한다 그리되자 조합측에서는 곳밀양서에 급보하여 서장이하여러서원이 현장에달려와서 십여명의청년을 검거인치하고 흣시나 그들배후에서 선동하고잇는 혹막이나잇지안흔가고 계속취조중이다 란투원인은 전기량모가 흥분되여서몰려온 부녀자들에게 욕설

長津袂物里貯水池 用地問題遂解決

地主와買收安協成立

【咸興】장진군상남면 추물리(長津郡上南面袂物里)의 장진강수전회사제이저수지(第二貯水池)용지 중 약일만평은 작년칠월이래 회사당국과 관계지주사명과의사이에 매수교섭을하야오든바 결국타협을 엇지못하고 필경작년십일월에 토지수용인정신청(土地收用認定申請)을 함남도에 제출하야 그후지주들의태도가 각방면의주목을 집중식히고 잇든바 몃칠전에 이르러서 회사당국과 당사자사이의 매수협의가 성립되야 지난십구일 동회사로부터 토지수용령신청을 취하(取下)하얏다 이리하야 함남도토목과에서도이십일일 관계서류를 반보하엿는데 이로인하야 주목되든 이문제도 원만히락착을지엇다

第一回全朝鮮拳鬪閉幕

各級의覇者決定

全朝鮮아마튜어 拳鬪協會主催의 第一回全朝鮮아마튜어拳鬪選手權大會第三日은 二十四日午後七時半부터 太平通朝鮮日報社大講堂特設링에서 열린바 이틀동의 激戰을거처서 이날에登場한俊鋭들은 戰頭부터 悲壯한熱戰을展開하야 滿場觀衆으로하야금 極度로 興奮케하드니 다음과가튼戰績으로 各階級의 覇者를決定한後 圓滿히 幕을다치엇다

【풀라이級】準決勝 鄭福壽(東拳)KO 金仁鎬(靑拳)(第一라운드二分二七秒)

【밴탐級】準決勝 韓一男(靑拳) 判定 李時龍(無所屬)

金丙玉(培材) 判定 李敬烈(靑拳)

金相敦(靑拳) 判定 徐萬福(東拳)

【라이트級】準決勝 鮮于浩(平壤) 判定 金熙燦(東拳)

朴順喆(東拳) 判定 房容植(東拳)

【헤비一級오픈게임】 崔永洛(東拳) KO 金明準(海州)(第一라운드五十一秒)

各級決勝戰績

【페더一級】 韓龍河(東拳)TKO 金文洙(東拳)(第二라운드一分十五秒)

【풀라이級】 鄭福壽(東拳) KO 韓一男(靑拳)(第一라운드卅一秒)

【밴탐級】 金相敦(靑拳) 延長 金丙玉(培材)

【라이트級】 鮮于浩(平壤) 延長 朴順喆(東拳)

【웰터一級】 李龍圭(東拳) 反則 朴範植(靑拳)

明治 5A 早大 4

【東京電話同盟】明大對早大一回戰은 午後三時七分부터 神宮球場에서 早大先攻으로 開始한바 補回戰에드러가 五A對四로 明大가 이것다 閉戰六時

明	0	2	0	0	0	1	0	0	0	0	2	5A
早	0	0	2	0	0	1	0	0	0	0	1	4

佛國製品

補血强壯劑 헤모판비린 HEMOPANBILINE

血球再生促進劑肝臟에끼쓰及판비린合劑

貧血 萎黃病 病後衰弱 無力狀態 消耗性疾患及出血性疾患의特效藥

佛蘭西『윗풀一』博士發見에依하야 肝臟에끼쓰가惡性貧血早期治療劑가됨은 現在醫學界가周知하는 事實的證據다 그리고 米國學者『미노一』及『물一푸』兩博士로부러臨床的實驗에依하야肝臟에끼쓰가貧血에特效스럽다는것을 널리世上에 또다시發表하엿다 이에基礎를삼어『푸란테아』博士는本『헤모판비린』을 創造하엿는데 이제 그成分으로만보드라도 效果의有無를判明할수가잇다

成分 血球再生促進劑肝臟에끼쓰 酸化헤모구로빈· 枸櫞酸안모니우무鐵 肝臟全에끼쓰· 膽膵에끼쓰膽囊에끼쓰 포도피린· 純구리세린……等

用法 一日三茶匙重要食事前

包裝 100g

有意諸氏는먼저信任하는醫師의게此藥을問議하여보시고 試用하시기를바랍니다

OLIVIER HAICHANG 海昌洋行

直輸入元 佛蘭西オリーヴアー會社日本總經理 海昌洋行 京城府黃金町二丁目八八 電話(長)本局一八七四 振替口座京城八六六七番 本店 里昻、倉庫 香港 支店 京城、上海、漢口、天津

結核特效劑 삐오효린 BIOCHOLINE

結核菌에對하야世界唯一權威者인『갈一근』博士는일즉이 免疫劑『B·C·G』를 創製하야 世上에내여노앗스나 理論보다 實驗에잇서서 도로혀 害로운便이만헛다 그때비로소『카一근』博士는 結核이란그病原菌을 殺滅하는療法을 쓸수가업고 病原菌에 對한 抗毒素療法이 必要하다는것을깨달앗다。이에비롯하야『카一근』『류一레트』兩教授는十餘星霜苦心研究하든中『삐오효린』을發見하엿는데그 成分은『鹽酸효린』等等의 有機化合物이다。이것이 體內에드러가면반듯이抗毒素作用의原動力인『효레스테린』을 增進시키나니 自然的으로 體熱이 降下되며 血壓이 低下되고 食慾增進하며 盜汗消滅其他患者로하여곰 自覺的症狀을消失케하고 日復日로 肺症狀이조와지는것은 現在朝鮮各地高名醫師及療養院에서 證驗한것이니 患者여! 그대는 躊躇말고 一日速히 그대의 가장信任하는 醫師의게 問議하여 그대의 새希望을 품음과 同時에 生의 曙光이 그대를 迎接하도록 勇斷하여주기를바라는바이다

用法 隔日一管 皮下注射

包裝 10×1cc 100×1cc

行樂

봄의 부드러운 해빗을맛고 빗나는 풀포기를 밟으면서 一家族의 질거운行樂에는、健康上조고마한 支障이잇서도滋味가업습니다 口渴、不快、疲勞、倦怠、食前食後等에는 반듯이仁丹으로防護하야 速히回復해주십시요

全國藥店、百貨店、煙草店、賣店에서 銀粒仁丹(百五十粒入)十錢부터販賣

仁丹

제브라 ゼブラ製自轉車 (カタログ進呈)

朝鮮總配給地方所 手塚商店 京城府櫻井町

東洋劇場

悲劇 男便의貞操 三幕 次週豫告 李雲芳作

喜劇 제버릇개주나 一幕

戀愛悲劇『女人哀史』六幕八場

崔獨鵑作

南宮春作

四月廿四日낫부터 劇團靑春座歸京公演第一週 崔獨鵑先生大傑作披露週間 到處凱歌、連戰連勝의靑春座는 山、高原의巡演을 맛치고 다시 歸京하여새로운名作으로 中央公演을열게되엿습니다 ▽上演名作劇本▽

明治座

4月24日ヨリ 長期時間上映映畫

京日世界ニュース 12.10 7.10

大船トーキー桑野通子主演 桃子の貞操 12.23 3.39 7.21

朝日世界ニュース 3.23 8.33

ターザンの豫告篇

文藝峰主演 旅路 10.30 1.40 4.50 8.48

邦文字幕挿入版

早朝御優待 午前10時30分まで 大人40錢に 小人20錢に 割引

新富座

◇四月二十四日부터三日間!!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三回上映(一回十二時二回三時半三回七時半)續映

◇유나이뎃트社特作全發聲日本版 大名篇!! 콘고-部隊

◇PCL超特作オール・トキ版!! 大爆笑喜劇エノケンの千萬長者

◇マキノ超特作オール・トーキ版 時代劇 お祭佐七

京城新堂町 電(本)五六七番

古鐵物盜犯

부내 신흥정(新興町)일백삼번지에사는 석섬대(石雖大)(二三)는 이십삼일오후 일곱시쯤에 부내약초정(若草町) 삼구번지 전중(田中)이란사람집에서 고철(古鐵)한섬을 훔치다가 본정서원에게체포되엿다한다

撒水不充分으로 紅塵萬丈의仁川

人馬의交通은日加雜踏한데 市民의不平이頗高

【仁川】작금인천의 왕래객을조사하야보면 상춘객으로서 실로 큰잡답을 일우고잇슬뿐아니라 상인천역의 승강객은 실로평시에 비하야 삼사배를 초과하고 잇스나 부의산수차의 산수부족으로 몬지가 몽시일어나 도저히 눈을뜨고 통행할수업는 정도에잇슬뿐아니라 산수에 남북의 차별을하고잇는감이 적지안타 부근주민의 원성은 놉하갈뿐이다 더구나 총예산 이백이십만원이라는 개항이래에 초기록을 가진 금년도예산에 산수조차 충분치못한 부의계획에 적지안흔 불평이잇다한다

梧柳講習所長 李聖煥氏頌德碑

學校도擴張昇格을압두고 盛大히除幕式擧行

【素砂】금번경인선 오류동역전에잇는 오류학술강습회에서는설립자요 현재관리자인 리성환(李聖煥)씨의송덕비제막식을 사월이십일일 오후두시에 오류동학술강습회운동장에서 성대히 거행한바 내빈으로 부천군수 허섭(許燮)씨이하 소사부근 유지관민나수 렬석하야성대하엿다 리성환씨의 내력을 듯건대 씨는본래 오류동출생으로 넉넉지못한 가정에태여나 고심참담의 반생중에 잇서다 지금부터 칠팔년전에서당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성적이 량호하야 아동이 증가함에따라서 학술강습소를 설립하야 자기전생활의 삼분지일을 던저 기초를다가와다 현재의전학동수 삼백여명을 수용하고금년삼월에 도당국에 오류사립학교(梧柳私立學校)사년제팔학급으로 인가원을제출하엿다는데 씨는 특히 지방교육과사회사업에 공헌이 적지안흔분이다

깜족스런少女 少年에게戀文

활동사진이며 『레코-드』이며 『카페-』노름질등 란숙된 현대문명은 도시의소년소녀에게 크나큰해독을끼치고잇다 십오세소년의 중학생이 별서녀자의비밀을 알게되엿고 십오세밖게되지안흔 처녀가 이미연애편지쓰기에 머리를 알군잇는 사실도 볼수잇다 이십사일 시내서대문서(西大門署)에는 열다섯살먹은 부자(富子)(一五)(假名)라는 소녀가 시내모중등학교일학년에 재학중인역시 십오세의 소년 리은세(李恩世)(一五)(假名)에게 매일과가티보내인 연애편지수십장이 압수되여잇는데 그내용을보면 그들은 충청북도 어떤고을에서 이웃동무로 픗사랑끄테 드디여 정까지 통하야버렷섯는데 이번봄에 소년은 시내전기중등학교에 입학한후 오로지 공부에전념하려고 한번 녀자를피하려는중이엇는데 한번 남자를일허버린소녀는 매일과가티 참아보시도못할 추상한내용의 연애편지를 보내게된것으로 드디여 경찰의눈에 띄인바되여 엄중한설유를 박게까지되던것이다 아들딸을둔 일반가정에대하야 얼마나 무서운사실이냐! 사회적악영향도 악영향이려니와가정교육과 부형의 엄중한감독이절실히필요함이 한층더강요된다

巡査는안다!

食母의愚計綻露

부내삼판통(三坂通)삼백구십칠번지에사는 홍재묵(洪在默)의처 임씨(任氏)(二三)는 부내삼판통(三坂通)오십오번지에사는한천재(恒川齊)(二五)의집에서 식모로지나는 중지난이십일밤에 집주인들이 꼿구경나간틈을타서 오바한개와 어린애오바두개와 이불한채를 절취해노코 도적이드러와서가저갓다고 도적의침입한형적을 만드러노코 소관동산서에 신고하엿스나 서원은 이간계를간파하고즉석에서 체포하엿스며 절취한물건도 그집석탄녀허두는창고속에서 발견하엿다 한다

開城이나흔青年畵伯 名譽의金仁承君

東京서累次特選되엿든新人 今春卒業錦衣還鄉

【開城】동경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라 하면 일본내지 화단(畵壇)에 등룡문이 되여잇는 이곳에서 단연수석으로 졸업하야 영예의 존재를저 고화단에 뚜렷이 알지노흔동지 난십이일 금의로 환고향한 청년화가가잇다 그는개성이나흔미술가 김인승(金仁承)(二七)군으로 군은 개성에 본적을가지고 소화오년에 개성공립상업학교(開城商業)를 졸업하고 지금으로부터 칠년전 동경으로 뛰여가 전기 학교에 입학하야 유화과(洋畵科)에 학적을 두엇섯는데 작년사월 일본내지화단에 상당히 권위잇는 광풍회(光風會)에 양화를 출품해서 특선된것을비롯하야 또는 그해가을제전(帝展)에도 양화를 출품하야 특선의 광영을어덧고 금년이월에 개최된전기『광풍회』이십사회 전람회엔 회실(繪室)이란 사생화를출품하야 특선에 입상되엿도잇다 이리하야 김군은 화가로서의 그실력이 비범한것이 인정되엿슬뿐아니라 그런중 더욱이군은 나젊은작가인만큼 우리의화단에 공적을 크게빗내는 혜성적 존재가 되여주기를바라는바이라한다 그나이젊은만큼 그전도는 일층기대되고잇다 (사진은 김군과 그의그림)

十二歲의少年 自動車에重傷

이십사일 오후두시오십분쯤에 시내 경운정(慶雲町)일백일번지 압길에서 시내돈의정(敦義町)구십일번지 『미나미』자동차부장기용(張基用)(三七)이운전하고재동정(齋洞町)방면에서안국정(安國町)쪽으로가는 경구천이백삼십호차에 안국정(安國町)일백오십오번지 서효원(徐孝源)(一二)이가 치이여서 얼골에 약이주일간의 상처를 밧고 부근 오원숙(吳元淑)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鐵道軌條훔친 쇠도적一黨

영등포경찰서(永登浦警察署)에서는 근일각종철물값이 오름을따라 신흥공업도시인 영등포각종공장에서 매일가티 일어나는도난사건이 빈번함을따라 그간각관계자에게 주의를주어오든터인데 수일전에는 철도선로의 레-일도는 철못등을 절취된사실을알게된 그경찰서에서는 매일가티형사대를활동시켜 면밀히고물상등을 조사하야 그범인들을 검거한것이다 본적시흥군동면 구로리(始興郡東面九老里)사백십부번지 리삼만(李三萬)(二〇)、가흥동리오백칠십번지 류황곤(柳黃崑)(二〇)、광주군중부면 단대리(廣州郡中部面丹岱里)리호석(李好石)(二〇)등 세명이 지난삼월이십일일 오후네시경 시흥군동면 철산리(始興郡東面鐵山里)에경인선철도확장단 통행을방지코저세운 철조망의 기둥으로 쓰게된 철도국소유인 직경일촌오푼기리 륙척의파입십오본 시가삼십원어치를절취하야 리삼만방에운반한후 집중미테 감추엇고 동이십이일오후다섯시경 드림정경인철도의 사리운반하는 동철도국소유의 기리열녀자되는 레-일네개 시가십륙원어치를 절취하야 전기장소에 감추어고 이십삼일오후두시경에는 시흥군동면 구로리 경부선철도선로레-일에 부친 철못 이십칠개 시가이십칠원가량되는것을 빼어다가 전기장소에 숨기고 이튼날이십사일오전일곱시경에 전기삼회절취한것을 전부시내도림정(道林町)일백칠십팔번지 엿집 리공천(李公天)방에 운반하야 팔원이십팔전에 매각하야 둘이서분배하얏고 리삼만은 리호석과 다시공모하야 이십륙일오전열시 동면 가리봉(東面加里峰)경부선선로에 부친철못 오십사개 시가오십사원가량의것을 전기와가튼방법으로 절취하야 시내도림정삼백십륙번지 고물상김재철(金在喆)방에 매각소비한것이 판명되엿다는데 아프로도 여죄가 상당히 만홀모양이라고한다

日曜講話

◇中央教會 午前十一時 李培世氏
朝鮮과滿洲
午後八時
在滿同胞에對한朝鮮基督教의使命 金永燮氏
◇宗橋教會 午前十一時 申公淑氏
基督教人의香氣
午後七時三十八分 張鍾敎氏
◇石橋教會 午前十一時 朴淵瑞氏
어대로갈가
眞正한教育
午後七時半 吳貞賢氏
時代의逆行者
◇貞洞第一禮拜堂 上午十一時 梁栩煥氏
忠誠을다하라
下午七時半 金明注氏
聖神의活動
◇南大門教會 午前十一時 崔允寬氏
내가憧憬하는教會建物
午後八時
未定
◇基督教會 (仁川 松峴町教會) 김노득氏
午前十一時 李寅範氏
委任式에際하야
午後七時半 申新根氏
使命感
◇覺皇寺 午前十一時 朴聖穆氏
眞心의體驗

스포-츠欄

卓球聯盟戰第二日 開城軍이優勝

高麗卓球聯盟主催의 第三回全朝鮮卓球聯盟戰 第二日의 第一部戰은 二十四日 午後三時부터 鍾路靑年會卓球場에서 開城、雅俱、大邱、總督府、京研等의 五團體의 白熱的接戰으로 열린바 開城中央卓球俱樂部가 四戰四勝의 全勝率로서 第一部에 優勝하엿다 그리고第一部의末位된雅樂卓球俱樂部는第二部로떠러젓다

◇第一部戰績

開城俱 3……0 總督府
京研俱 3……0 雅樂俱
開城俱 3……0 大邱俱
總督府 3……0 雅樂俱
京研俱 3……2 大邱俱
開城俱 3……0 雅樂俱
總督府 3……2 京研俱
大邱俱 3……0 雅樂俱
開城俱 3……2 京研俱
總督府 3……0 大邱俱

【順位】1、全勝 開城軍 2、三勝一敗 總督府軍 3、二勝二敗京城卓研 4、一勝三敗大邱 5、全敗李王職雅樂部

A마라손에 新進金君優勝

서울陸上競技聯盟主催의 第二十三回A마라손會는 豫定과가티 二十四日午後三時부터 이에 參加한 二十名 選手들이 光化門廣場을 出發하야 麻浦電車終點往復 約六哩 『코-스』에서 行한바 이날新進의 金國培君(京城)은 諸選手를 재치고 三十五分三十二秒의 快記錄으로 優勝하엿는데 往路와 往復路의 所要時間은 다음과갓다

◇往路타임
1金國培(京城) 一七分三〇秒
1諸泰熙(靑學) 一七分三〇秒
1金興洙(平和) 一七分三〇秒
4李淳榮(水原) 一七分五五秒
5鄭壽吉(白光) 一八分
6孫允益(白光) 一八分一五秒
6李甫洙(白虎) 一八分一五秒
8張壽榮(白馬) 一八分二五秒
9金在八(白光) 一八分三五秒
10金義甲(四海) 一八分五六秒
11朴谷駿(漢榮) 一九分〇二秒
12李昌洙(東市) 一九分一五秒
13陳成寬(京城) 一九分二〇秒

◇往復總타임
1金國培(京城) 三五分三二秒
2諸泰熙(靑學) 三六分一一秒
3金興洙(平和) 三六分二八秒
4鄭壽吉(白光) 三七分一五秒
5李淳榮(水原) 三七分一六秒
6金在八(白光) 三七分五〇秒
7孫允益(白光) 三八分一〇秒
8張壽榮(白馬) 三八分一二秒
9李甫洙(白虎) 三九分一〇秒
10金義甲(四海) 三九分五四秒

立教4 法政4

【東京電話同盟】東京六大學野球리-그戰第三日의 法政對立教第一回戰은 二十四日午後零時半부터 神宮球場에서 立教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四對四의 無勝負로마치엇다

法政=301000000—4
立教=000000400—4

今日의運動

◀驛傳=朝鮮學生陸上競技聯盟主催 第三回全朝鮮學生(大學·專門)驛傳競走大會 午前十一時半 水原北門出發 京城南大門決勝點(二萬九千四百三十九米)

◀卓球=全日本都市對抗卓球大會派遣 朝鮮代表都市最終豫選會 午前十時 帝大醫學部卓球室에서擧行

◀軟式野球=京城軟式野球聯盟主催 第一回京城軟式野球優勝大會第一日 午前九時半開始 三中井對京城工場、FD對大林組、商銀對中央試驗所、大洋俱對書籍印、殖銀對金聯 (以上全部京城球場)

◀庭球=朝鮮스포-츠社主催 中央庭球大會 午前九時 京城運動場『코-트』에서 擧行

◀自轉車=京城自轉車商工組合主催 全朝鮮自轉車競走大會 午前九時 京城運動場

長篇小說 어머니 【23】

李箕永 作
鄭玄雄 畵

第一、青孀篇 청춘의유혹 (十二)

인숙은 한강에서 도라오는길로 오래간만에 모교의 기숙사를 차저갓다.

토요일 오후이라 하학는 벌서 헤젓지만 기숙생들도외출한사람들이 만흔지 안팍이 조용하엿다. 다만•넓은 운동장에서 근처의 조무라기들 네댓명이 공던지기를하고 놀면서 짓거리는 소리가 장한(長閑)한 여름날의 적막을깨트리고 잇섯다.

인숙은 무슨 볼일이 잇는것도안이요 그러타고 지나는길엽도 아니엿스나 그는 너무도답답한 가슴을 어듸다 하소연할 곳이업는지라 자기의 숙소로는 드러가기도 실혀서 무심히 발길을 떼노흔것이 여기까지 온것이다.

그는 우선 자기와 한방에서 거처하든 영자를만나고 십헛다 방문을 여러노코 안저서, 책을 보기에 잠착하든 영자는바게서 인기척이 [illegible] 머리를 처드러보더니

『아이그!언니가 웬일이시유?』

하고 반색을하며 뛰여나온다.

『자-어서 올라와요! 대단히 더웁지요?』

『좀 더웁구만……그동안 공부 잘햇서……별일업고……』

인숙은 양산을 접어서 마루아래 세우고, 책보를 든채로걸터안젓다.

『방으로 드러와요—뒷창이 잇서서 방이 더시연 해요……』

『아따 누가 첨와보는줄 아나!』

『호……그러니까 말이지요……내야 별일이 뭐잇겟수마는 언니야말로 새생활의 재미가 어떳수』

『새생활의 재미?—대단 조치!』

인숙은 시드른 꼿과 가튼미소를 띄우며 힘업는 대답을간신히하엿다.

『물론 조시겟지……그러치만줄업을 하섯다구 그러케 발길을 끈는단말이요!』

『하하……그러키에 말이지…아니 우선 물한그릇부터 먹어야겟서!』

『냉수보다도 어름이 낫지!내 얼른 사오께!』

『아니, 고만 두어! 우선 급한걸!』

『그럼, 수통에가서 떠올께 방으로 드러가요!응?』

『그래!』

인숙은 영자가 줄을 뜨려나간사이에 방으로 드러가서 뒤창문으로 울박글 내다보고잇섯다. 그는 한방에서 동고하든자기와 제일친한 동무—아니 그보다도 친동생가치 지내는 영자를 만낫는데도답답하기는 일반인것이 야속하엿다.

아모리 친하다고는 하나그는 참아 자기의 비밀을 고백할용기가 나지안헛나.

『자-냉수!뭘 그러케 내다보고 스섯수?』

『응!참믄바람이시연하길내…』

인숙은 영자의 목소리를 듯자 얼른 사색을 감추고 도라서서 그가 내미는 냉수한그릇을 단숨에 드리켯다.

『에-션하다!』

인숙은 아침도 설친데다가점심까지 안먹어서 시장끼가 몹시 드러갓다. 그래도 그는 긴장됨 감정에 흥분되여서 여적까지 그런줄을 모르고 잇섯다 그는 전차를 타고 왓는데도왜 그러케 기력이 [illegible]몰랏다가 비로소 시장한 생각이 들면서부터 갑작이 착 까부러진다. 뱃속에서는 쪼로록 소리가 나고 밧작말른 입안에는쓰듸쓴침이 너머온다.

『아이 다리 아퍼 난 좀드러눠야겟서!』

인숙은 그자리에 책보를 비고 드러누엇다.

『그럼 누서요—대관절 어듸서 오시는 길이라우?』

『어듸를 갓다오는데 걸음을 좀 걸엇더니만 다리가 어떠케 아푼지……』

『점심은 자섯수?』

『그럼 점심이 여태 잇서—』

『아니, 안자섯스면 뭐하나 시켜오께—』

『아니여, 먹엇서요!』

인숙은 분명한 태도로 사절하엿다. 영자는 인숙의 눈치를 살피다가

『어째, 혈색이 조치못하신것가튼데……어듸 편치 안우?』

『아마 고단해서 그런게지』

인숙은 무심히 웃어보인다.

『오라—……그런데, 참……언니 어제 신문보섯겟지……우리학교에 돌발사건이 생긴것…』

영자는 깜작 이저든것처럼 눈알을 반짝!거리는데,

『뭐! 돌발사건이라니!난 아직 못봣는데……』

하고 인숙이도 마주 놀래면서 별떡 이러나 안젓다.

專賣特許 파파인酵素配合
ALMOND PAPAYA
百貨店의는 윈도-를 드려다보시오 化粧品의케-스도보시오 꼿이滿發한것가튼 그속에 香氣가조코 빗갈도조코
三錢切手封入申込次第……見本……進呈
한評判인逸品——
여드름. 죽은깨. 기미 업새는대
アモンパパヤ 洗粉 ¥0.35
姉妹品의傑作을併用하시오 美化作用이三倍化된다
東京神田松住町 杉田商店
藥用クレーム アモンパパヤ
一號普通瓶一圓三十錢
二號大瓶目からは二號强度
一圓八十錢

木手道具、理髮器械、金物一般
ステッキ パイプ 卸商
現代的趣味에最合한 高價行이極히良好
大阪市東區北久太郎町一丁目心齋橋筋
(申込次第型錄進呈)
井村友三郎商店

鋸製造卸 大工道具 卸値段表進呈
專門製造直賣、信用廉價日本一
大阪市東區神崎町四一
武村製作所
電話(東)一七八五番 振替大阪七六四七〇番

百圓資本으로文房具店을開業합니다
カタログ進呈 郵券二錢
內外文房具問屋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一丁目
イチヤ商店
電話船場四七七七番 振替大阪三一五七三番

勞働 セーラー 乘馬ズボン 洋服各種 製造卸
其他鑛物、小倉一般
(商店에限하야見本相談에應함)
大阪市東區平野町一丁目二〇番地
合資會社 右原重商店

巡査
朝鮮及滿洲國巡査看守志願者에게絶對責任付受驗案內書請求次第無代急送
內容最新
京城府林町八二番地 鮮滿警察學會 振替京城一三三九二

一見即座に役に立つ!
改正新版 書式全書
◆代書人いらず◆ ドンナ難しい願居でも女子供にもタヤスク書ける便利な寶典
日常生活上時々起つて來る諸願屆等の書き方を知らぬと思はぬ失敗をする。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青少年 通信社員大募集
小學卒業程度 自宅執務可能 高尙、愉快한業務(事務側員) 月收多大、略歷記入申込次第詳細書無代進呈
和歌山市新內町 昭和通信社

아리따운表紙!

보셧습니까 少年五月號

단十錢!

絶版近在

主要內容

千년묵은용 (童話)…洪一吾
독속의敵兵 (傳記)…車相瓚
웅철이冒險 (童話)…朱耀燮
꼿동리 (美談)…林鴻恩
새少年讀本 (訓話)…李殷相
바보溫達 (歷史)…文一平
朝鮮말자랑 (實益)…崔鉉培
할멈과돼지 (諧話)…尹石重
園藝讀本 (植物)…李德鳳
地球이야기 (科學)…沈亨弼
당조밧 (作曲)…尹克榮
엄마를차저 (小說)…蔡萬植
검정뿔 (漫畵)…吳澤基
샛별집 (歌劇)…金圭銀

그리고이박게『척척大學』『깔깔笑年會』『少年娛樂室』『요술딱지』等 스물멧가지가더잇고 또팔뚝時計안개타는『동무사귀기大懸賞』이 잇습니다 그러고도册갑은여전十전입니다. 거진다나갓스니 오늘 곳 注文하십시오。

★一册十錢(送料一錢) 半年치六十錢 一年치一圓 ★團體注文大歡迎 三割提供★ 販賣所大募集★

注文은시방곳 朝鮮日報社出版部로! (振替京城 五八七八)

新興鐵原華版

往昔의泰封王國 而今엔江原一의大雄府

總人口九萬名을擁護하얏스며 產業으로도無愧首位

現今鐵原郡全體九萬人口中二萬一千五百餘人口는 鐵原邑을形成하고四千五百의 戶數는 江原道의第一都市를 자랑하고잇다 北部一帶一望無際의 大沃野의產米는朝鮮의 優秀한高名을 保存코잇스며 豐富한 物貨는 江原道全體를通한 交通網에 依하야集散의大市場을 造成코잇다 此에伴하야 米穀에對한 精米業蠶業에對한 製絲業等의 工業이晝夜로發展曲을 울니고잇다 京元線最大上鐵原驛은 年二十六萬六千六百名의 顧客을吸收하고잇스며 鐵原郡을 南北으로 中斷하야一端은首都인 京城에 不過二時間이오 北으로 一端은 三時間半이면 東海岸第一大港인 元山에到着될수잇다 이뿐만안니라鐵原驛으로부터 電車를通하야 世界的絕勝名公園인 金剛山도 僅僅三時間이면 求景할수잇는바 自働車線路伊川線等을 合하면四通八達의交通網은 조곰도 거짓이업다 交通의 至便關係로 物產의集散은자못 殷盛한데 特히郡廳 警察署 道立醫院 裁判所 稅務署穀物檢查所 銀行金融組合 水利組合電氣會社 製絲工場等의 施設은江原道를 通하야 堂堂第一位를占領하고 今年立案中에잇는 都市計畫實施가 完成된다면 實的量的으로 大鐵原의 新面目을 形成할것이라고믿는다

…에서 富榮을자랑하며 新信觀客을 連日마지하고잇다 ◇寫眞은 深源寺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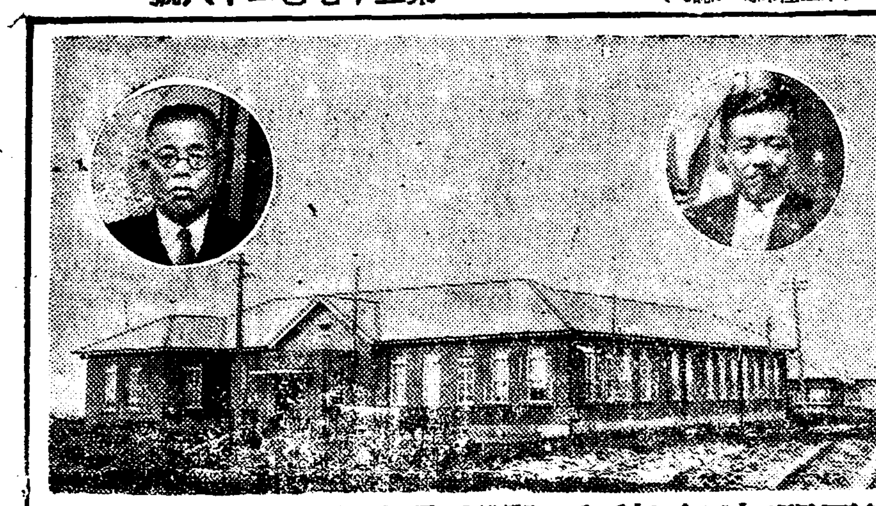
歷史的으로본 鐵原의沿革

高句麗當時는 鐵圓郡이라稱하고 新羅景德王時에 改稱鐵城이라하얏다가 그後 弓裔가起兵하야 此를略取하고 北面古闕里에이르러 宮都를定하고 國號를 泰封이라 稱하다 高麗太祖가 即位하야 都邑을 松嶽에 移宮함을따라 此地를 東川郡이라改稱하얏고 成宗四年에 團練使를 置하얏다가 穆宗十八年에 罷하고 顯宗九年에 知州事로 改하야 高宗四十一年 縣令에 降한바잇섯스나 未久하야 牧으로 變更하다 忠宣王二年에 東州를 改稱하야 鐵原郡이라하고 다시府라하얏다 李朝太宗十三年에 都護府로 變更하야 世宗二年에 京畿道로부터 江原道에 移屬하다 英宗卅二年에 春川郡으로부터 防營을 移設하고 大正二年三月에 京畿道所屬元朔寧郡에 屬하얏든 乃文面과 馬場、寅目三面을 編入하니 一路江原一의 雄府가되엿스며 昭和六年四月一日地方制度改正에伴하야 鐵原面을 鐵原邑이라 改稱하니 回顧되는한줄기 歷史는 世事의 反復을든기게할다름이라

名勝古蹟

▲泰封古都—邑으로부터 月井里를지나 約一里쯤가면 靑邱半島 二十八都의 一인 泰封國의 遺墟가잇다 그것은距今 一千數十年前 新羅 憲康王의 庶子弓裔가 都를奠하고一代의梟雄으로活躍하던昭然한事蹟이東史에 記載되엇다 그러나崇武修文의德이 적엇든때문에 二十九年間 短期에 國祚가 맛치고 그故宮遺址에는 野人의耕耘歌와 騷客의 禾黍詩를 읊을따름이오 古物의存在로는 一座의石燈이 말업시 草萊間에 沈默을직히고잇다

▲深源寺—鐵原驛에서汽車를 乘하고 大光驛에 나려 東으로 鹽嶺을 넘어 深谷의 人村인 桃李洞을 지나 長承川을 건너 錦繡嶂을 두른듯한 楓林속을지나면 二十八位의 浮屠가 羅立하야 옛道人을 追慕케한다 그中特히 霄月先生의 六千弟子의 三碑의하나가 前列에서서 名山을 證하고잇다 螺髮은 媚嫵 虹橋는 偃橫한데 擧頭一望하면 蹄然히 白雲間의 玲瓏한 金碧이곳小金剛寶蓋山이다 五町쯤을 求景하며 東으로올라가면 明麗한 大路終點에 深源寺가 眼前에 展開되야 若路의 心勞를 풀어준다 距今一千二百八十三年前 新羅眞德女王元年丁未에 靈源禪師의 創建으로 中間 許多波瀾의 가진歷史는 明



鐵原開拓의原動力 中央於雲의兩水組

全朝鮮을通하야 施設과事業이 屈指되는 두水利組合이여 荒地鐵原을今日과가티開拓하얏다함은 兩水利組合의貢獻이라고볼수잇다 再昨年以來其成績이 良好하야 事業振興이日進月張하야 只今은當當한全朝鮮에 首位를 닷투기에 損色이업다 今日의顯著한功을세게됨것은 特히 現水利組合淸田理事外 植田技師長의勞力이라고 一般의稱頌이 크다 ◇寫眞…水利組合과淸田理事及植田技師長

鐵原의重鎭人物

事業界代表人物로 名望놉흔 金溶玉氏

氏는 京城出生으로일즉이東京에가서 明治大學法科를優秀한成績으로卒業한後 社會事業에뜻을두고바잇서서 十餘年前鐵原에 搬移하야 邑會議員當選에 最高點數를엇고 事業上無言實行을 主로하야 社會的一大波紋을그리든中身病으로 目的을 達치못하다가近年에와서 幸히健康이恢復됨을따라 一步進就的氣像을發揮코잇다 氏는天性이溫恭하야 交際的이오 吟風咏月의淸趣가 可히當地의靑年諸家이다 特徵은社會事業에는自進的出捐이오 私的觀念보다公的觀念이優越하야 一般의人氣를 左右함이커서 今般道會議員選擧場에까지도 馬를몰게된것도 이原因이라고할것이다 氏의 將來에는 鐵原發展의 重任이불것고잇다고 大衆의믿는바가크다 現在東鐵原驛前에서 精米業과穀物肥料商 運送業을兼한丸玉商店이氏의經營이다 ◇寫眞은 金溶玉氏

實踐的人物인 許文奎氏

氏는黃海道信川出生으로 十年前에 깨달은바잇서 鐵原郡東松面에와서 移民들과손을잡고農業에從事하다가 目的을達함에는物心兩面에 힘을가지지안으면 안된다는깃김과 아울러 鐵原邑으로 몸을옴기여 商界에 耳目을밝키며他人의 成功을爲하야 남모르게物的 或은 心的으로 功績을 낫타낸바가 一二次가아니다 氏의實踐的氣像은 將來큰成功을 마지하리라고 一般은 밋는다 (寫眞은 許文奎氏)

文章界의巨星인 小松 李錫瑩氏

全朝鮮에 一流文學家로 名聲이藉藉한 小松李先生이라면 누구나모르리오 氏는 看書吟咏이아니면 生世之樂을 모르며 聖經子集의 熟味는 勿論萬篇의 著作은 過獎이아니라 事實이다 文士의 詩券考試 墓誌銘 板上記文 孝烈寶彰文 等等의 請求는 氏의 机床을 채운다 少時에同郡李範夏李鳳夏氏兄弟에게漢文을敎授하다가 時代의變遷을 先覺하고 鳳鳴學校를 設立하야 十餘星霜을 敎鞭을 잡고 男女를敎養함도 鐵原에 先生이처음이다 그後 數三面長을 次第로金融組合長 儒道闡明會長으로 現下明德行文廟直員道囑託講師로 老靑年의 活躍을하고잇다 ◇寫眞은小松李先生

佛敎界의事業家 深源寺住持 李鍾學氏

時代의變遷을따라 今日의佛敎에도 社會的으로 事業家를要望하는바이다 氏는社會的要求에應한듯한 道人이면서도 稀有의手腕을兼備하고잇다 深源寺住持就任以來八年間에寺財를 貯蓄시켯고 只今에佛化의普及을 비롯하야顯著한成績은枚擧키難하니와 最近에는 法材養成의 計畫으로誠意活動한結果京城의 朴基佑、朴基石姉妹施主의讚同을어더 二萬五千圓의喜捨를밧앗도 氏의獨特한手腕이엿스며 今春부터深源寺內에華山經院을設立하고 後人을敎育하며 鐵原邑에布敎堂을設施하

鐵原一의慈善家로 事業界彗星 金應煥氏

氏는當年三十九歲의 壯年으로 鐵原의慈善事業家를말할때는 누구나金應煥氏를指摘케된다 寬厚正直한氏의天性은溫恭하고 勤儉謹愼하며 抱負가卓越하야 鐵原地方에模範的人物이오 頌德碑를 비롯하야 어든바功蹟이그數가 一二件이안이며 只今도貧民을爲하야여러方面으로 事業을計畫中이며 地方發展上一指의 功勞者임으로多年間邑評議員 消防組重役 區長等의公職을歷任하면서 生活改善과 美風助長의 敎化事業에 努力하는一方 特히農村… 에는오갓心血을밧처서 … 公稅代納 肥料斡旋等을 年中行事로하며 勤儉貯蓄 勞働事業을 積極的으로獎勵함으로 氏의計畫을遂하야 企業이完成된다면地方的으로有益이클것을 一般은크게밋고잇다고한다 (◇寫眞은 金應煥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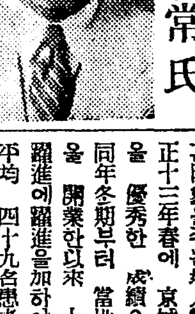
農村의指導者 李性善氏

氏는鐵原郡畝長面出生으로 當年五十三歲의老年이다 氏는新舊智識을兼備하야 農村振興運動이일어나기전부터 農村振興運動을同面大馬里에이르켜 그實績은全鮮的으로模範됨에 不足이업다 洞民과靑年들의將來를爲하야 夜間講習과 子女敎育에熱을 놉힌뿐만안이라 三友館을建設하야 朴俊緒 李承弼 朴貞緖三氏로하야금團合하야 蠶種製造業을 經營케하야 어로써 全洞民들의貧困을 完治하야 只今은 全洞五十四戶에 蠶業收益이 年二萬五千餘圓에達하게되여 實로全鮮的으로 模範農村이라고 불수잇다 ◇寫眞은 任義常氏

實業界의巨頭인 六合商會 金敬秀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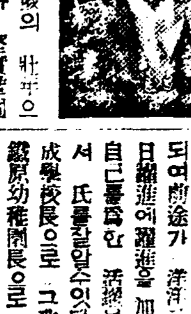
全鐵原에 精米供給을 獨占하고 米穀을中心으로 朝鮮人代表的貿易商인 六合商會가 氏의直營이다 氏는 豪放하면서도 意志가堅實하야見解가速함實踐의感이豐裕한人物이다 氏의 沈着한 … 야 心田開發運動에進出코자 現稅務署移轉에따라 基礎의無償授與를 當局에運動中이라는바 完成되는대로 敎育事業에 努力할것도立案中이다 ◇寫眞은金敬秀氏

商業界重鎭靑年 東原商會 任義常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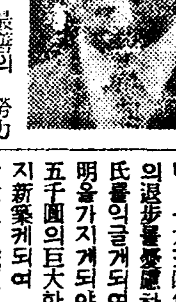


氏는 東松面出生으로 養正高普를卒業하고 即時鐵原商界에投身하야 精米業과 穀物商을 經營하야 顯著한成績을 보이는一方 社會事業에도 힘을만히기우리는 品性이두터운 眞實한模範靑年이며 現東鐵原驛前에잇는東原商會는 氏의經營이다 (寫眞은 李德一氏)

鐵原의明星으로 時代的活動家 李德一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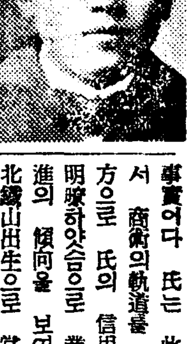


氏는 今年四十六歲의 壯年으로外觀과 性格이모다 堅實莊固하야 可히大衆을 代表할만한人品을 具備코잇다 伊川出生으로私立光東學校及 京城光武學校를卒業하고 隆熙二年부터 裁判所書記로 在任時나 大正十年부터平北警察部在任時나모다 溫着한性格은 자못의 人氣를 收集하얏섯다 大正十四年에 官職을辭任하고 鐵原邑으로轉居케됨에郡內一般은 氏의時代에應한 活動家로 鐵原의明星이될여遜色이업음을 認定하고江原道會議員에被選되엿스며 其外에도 또所得稅調查委員 郡小作委員 郡農會特別議員等의 公職을 一身에負荷하고잇스며 東州金融組合長選擧時에 滿點의投票로當選된것은氏의誠實한天才的人格을證明함이엿다 氏의活動과鐵原社會와는 오즉步調를함께하야 將來의發展과榮華가不遠할것을疑心업시 밋는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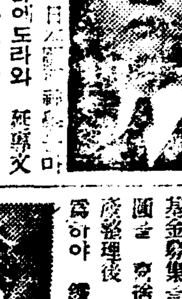
性實과 機敏한 手腕은 今日成功의主因이다 前途는 漸大擴張되여前途가 洋洋하며 只今도日日躍進에躍進을 加하고잇다 氏가自己를爲한 活躍보다도 地方에서 氏를잘알수잇다 義州에서信成學校長으로 그功勞가컷스며現鐵原幼稚園長으로 物心兩面의 盡力이큰것과 一便監理敎會에도 心血을밧처 最善의 努力을다하야 活動함을보아 社會에 맛치는功績의큰것을 可히알수잇다

醫療界權威者 鐵原公醫 李益秀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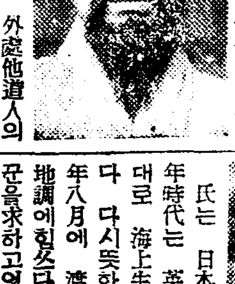
氏는 平北宣川出生으로 元來才德이 兼全하고 性格이 圓滿無缺하야 누구를 對하든지 조흔印象을주는好人物이다 氏가大正十三年春에 京城세부란스醫專을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하고同年冬期부터 當地에協成醫院을 開業한以來 十三年間業務는躍進에躍進을加하야 現今은一日平均 四十九名患者가 氏의治療를맛기爲하야 院門을두다리게되며明春에는 入院患者를 收容하기爲하야 病院을現院越便에增築하리라는데 以上各方으로 보아 鐵原醫療界의 權威者로 조금도 遜色이업스며 兼하야氏는 公醫요 電鐵會社囑託 金剛醫友會幹事等으로 日日東奔西走하면서도 社會事業을爲하야 한가놀나임믄 物心兩面으로 남다른心血을 바치여옴은 實로 他人으로하야금 模範人物이라아니치못할것이며 只今도 鐵原幼稚園園監이오 體育協會幹部로써 社會에 唯一한活動家라하야 一般은 氏의큰將來를爲하야빌고잇다고한다 ◇寫眞은 李益秀氏

監理敎主要人物 牧師李基喆氏



氏는일즉이 日本關西學院神學科를마치고 다시朝鮮에도라와 延禧專門文科를卒業한後 一九二六年에 渡米하야 南監理西南大學을卒業한後 歸國하야 豐富한信仰과學德은 氏의움직임을따라 二千萬兄弟들을 각금각금놀내게하얏섯다 一九三四年五月에 鐵原敎會의退步를憂慮하야 鎭南浦로부터 氏를의금게되여 鐵原敎界의新光明을가지게되야 今夏부터 一萬五千圓의巨大한經費로 禮拜堂까지新築케되여 方今工事中이다。 앞으로 鐵原敎界에 氏의活動期會가터만키를 一般은크게빈다고한다 ◇寫眞은李基喆氏

布木商界의王座인 三興商會主 崔奭範氏



鐵原의 商界는 外處他道人의集團으로된 關係上 個人的信用을 獲得하기는 極히 難事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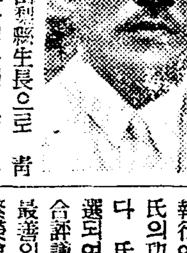
交通界의覇者鐵原自動車部

十餘年前에開設以來로 西谷氏의 鐵原交通網의原動力을잡고오든바 昨年二月부터는 純朝鮮人의손으로經營케되엿다 朴寅遠氏가代表로 事業을執行하고 李德一 朴顯洪兩氏가 協力同心하고잇는바 安峽市邊里는 벌서 開通되엿고 陽地里、回山도 不遠開通되리라고한다 ◇寫眞은 鐵原自動車部와 代表朴寅遠氏

寬厚無比한靑年 高熙源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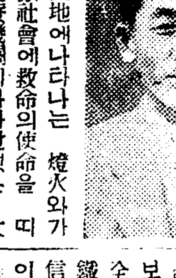
氏는 今年二十二歲의 新進靑年으로 富力으로보아 江原道內 首位를占하고잇서서 氏가 未成年時에잇서서는 治?間에 巨多大한波瀾도잇섯스나 氏가 … 잡자 그複雜多端한問題를 圓滿히 解決함에 잇서서는 누구나 感歎치안는이가 업다하며 數月前에 普校講堂新築問題로 六千圓의基金募集을 듯고 自進하야 二千圓을 寄附하얏스며 압흐로도 先代의遺志를 繼키爲하야 鐵原에 中學設置를 計畫中이라 한다 ◇寫眞은 高熙源氏

開拓과建設의主人 現道會員 小宮山八郎氏



氏는 日本山梨縣出生으로 靑年時代는 英米를떠돌어 性格그대로 海上生活에趣味를 가저섯다 다시뜻한바잇서 明治四十三年八月에 渡鮮하야 約二年間을 地調에힘쓰다가 肥沃平野가 일군을求하고엇든 鐵原에眼孔을며 물너 開拓事業을始作하야 理想그대로를 實現하얏다고 불수잇다 只今도鐵原社會에 모든事業執行에잇서서 言行을一致케하는氏의功績을보면 驚異를마지안는다 氏는現道會員으로 四回를連選되여잇고 中央、於雲兩水利組合評議員으로 任命되여 最善의勞力을밧치는中이며 鐵原繁榮會長 鐵原農會副會長 道路期成會長等의 公職을띄고 現在鐵原驛前에서 肥料農具穀物商事中이며 氏가가진抱負가 期必코鐵原社會를 도새롭게할날이잇슬것을 一般은밋는다 ◇寫眞은 小宮山八郎氏

刀圭界의元老인 救世醫院長 邊基栢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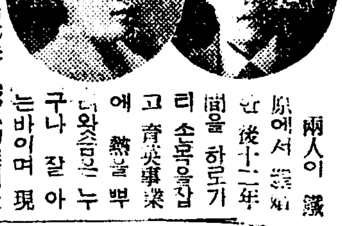


暗黑天地에나타나는 燈火와가티 鐵原社會에救命의使命을 띠우고 醫療機關이나타난것은 大正十一年十一月에 氏가救世醫院을設立한것이初有일것이다 氏는元山出生으로 私立光成學校를卒業하고 開城韓英書院을마친後京城醫新學校特別科를 卒業하고大正五年에 世醫專에入學하야 卒業後에도繼續하야 同校附屬病院에서醫術을硏究한後 비로소鐵原에서開院한바 先生은特히 小兒科에特異한技能을가지여 名望이두텁다고한다(寫眞은 邊基栢氏)

時代的社交家로 現邑會議員 朴顯洪氏

明治四十二年春에 京城外國語學校를卒業하고 朝鮮總督府郡書記에 任命되엿다가 大正十年에 官職을辭任하고 大邱에가서 大邱復明學校主 金蔚山女史財團設立當時第一線의 功勞者로 同校長代理及 附屬復明幼稚園長으로 多年盡力하야오다가 昭和三年春에鐵原邑으로 移任케되여鐵原社會에 要杜로오로지社交場에 活躍함에 自己를버려盡努하는바이며 現邑會議員東州金組監事中央水組評議員 公普校後援會評議員等其他 各機關의 重役으로 氏의巧妙的交際術에는 누구나놀라지안치못한다 ◇寫眞은 朴顯洪氏

教育界의重鎭 姜大呂氏와 李貞儀女史



兩人이 鐵原에서 當時에 前後十二年間을 하로가티 소곡을잡고 育英事業에 熱을 뿌리와슴은 누구나 잘아는바이며 現在 姜大呂氏는 鐵原幼稚園後援會長兼理事로 鐵原에 하나뿐인私學機關을 獨擔經營하야 三十三年間이 아닐것이며 李貞儀女史도 進明女高會監兼敎員의 豐裕한 經歷으로鐵原幼稚園慈母會長으로 一便 鐵原의女性界를指導함에 힘쓰고잇다 姜先生은 現酒造株式會社專務로 一方鐵原의 敎育界를 爲하야 眞心으로 努力하는 누구나 認識하는바이다 勤念함이만타고한다 ◇寫眞은姜大呂氏와李貞儀女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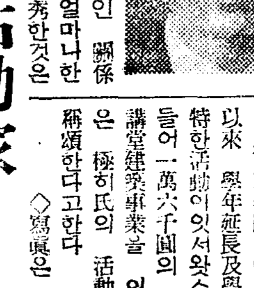
靑年界의모델 趙昌九氏

氏는實業界나社交界에모다가 鐵原에서 前無後無한堅實厚德한方年二十八歲의模範靑年이며 그리고 熱情的임으로 社交的움직임이아직적으나마 成功을得하얏스며實踐的堅志는 將來의社會에重鎭으로보지안흘사람이업다 鐵原에잇서서 大小모힘마다 氏의盡勞가크지안흠이업슴은 누구나認識하는바이다

事務日日興旺한 金剛山電鐵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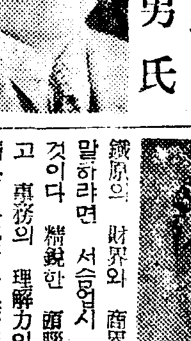
大正七年에 本社가設立되자 全世界的名勝金剛山은 더욱 알이우게되엿스며 美容의 電車는 可히世界的으로자랑할 만하다 社의事業은 日日旺盛하야 鐵原의雄勢를 더욱북돗고잇다고보인다 人物로現岡本專務 큰가勞功충한더에에 … 가 經理課長兼業務課長인山崎勝治兩氏의 힘은 設立以來로盡力하야왓다함으로보아 測量할수잇다 ◇——寫眞은 電鐵會社岡本專務、山崎課長

全朝鮮唯一의 鐵原農會事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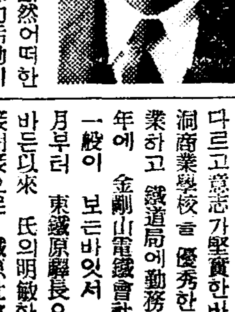
鐵原全體가 農業地帶인 關係로그郡農會의 事業에 얼마나한것은 알배이나 그中特秀한것은 農事改良은勿論正租貯藏倉庫業에는年六萬石을 突破하며 全朝鮮에四個所밧게업는 肥料配合所가鐵原郡農會의 附屬事業으로 年十六萬叺의 肥料를 鐵原地味에 合理케配合한다 以外에도 畜產과蠶業에도 다른地方에 볼수업는優秀한 成績을 나타내는바라한다◇寫眞은 郡守宮澤完三郎氏

開拓事業의先進 金榮男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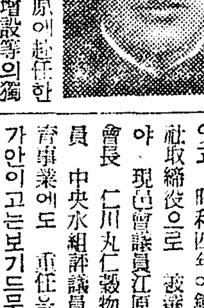
氏는二十七歲의 健康靑年으로 一年前부터 鐵原郡北面에未墾地를開拓키爲하야 多大한資本을投하고自身이農業에從事하며 開拓事業에邁進코잇다 氏는滿洲와가티鐵原을잘알고 仁川에서몸을鐵原으로옴기여온것이다 ◇寫眞은 金榮男氏

多角的活動家 現邑會議員 朴贊珪氏



氏는 畝長面出生으로 多年間畝長面面長으로 現在本面이他面보다 卓越한進步를 갓게된것은全혀氏의努力이엿고 五年前부터鐵原驛前에移任하야 地方發展의信號鍾을울리며 各方面으로活動이크다 今般道會議員選擧場에出馬하는氏의腦中에는 斷然어떠한必死的으로 覺悟한追想的活動이 잇스리라고 一般은밋는바이다 ◇寫眞은 朴贊珪氏

敎育에貢獻만흔 鐵原公普校長 吉尾勳氏



氏가昨年四月에 鐵原에赴任한以來 學年延長及學級增設等의 獨特한活動이잇서왓스며 新年度에 들어一萬六千圓의 寄附金을모아講堂建築事業을 이르킨바 一般은 極히氏의 活動의 卓越함을稱頌한다고한다 ◇寫眞은 吉尾勳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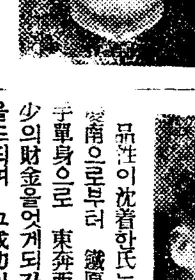
運輸界의成功者 協同運送店主 張成龍氏

氏는二八靑春快活한運動家로平南順川으로부터 十一年前에 赤手入鐵以後快活한 氣像과 明瞭한 頭腦는 今日의成功을가저왓스며 鐵原에잇서서 運送界의最高人氣를 獨點하고잇슴은 勿論이오 社會를 爲하는마음이 甚히두러워그成功은 現實보다도將來가더有望함을 一般은 엿보고잇다

明敏頭腦所有者 東鐵原驛長 金明得氏

氏는今年三十四歲의 靑年으로 事物에對한硏究와判斷力이남보다 다르고意志가堅實한바氏는京城梅洞商業學校를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하고 鐵道局에勤務하다가 大正八年에 金剛山電鐵會社로入社한後一般이 보는바잇서 昭和六年八月부터 東鐵原驛長으로 任命을바든以來 氏의明敏한頭腦는 直接間接으로 鐵原社會를爲하야盡力하는바가크다 ◇寫眞은 金明得氏

醫療界의明星— 鐵道醫院長 林炳日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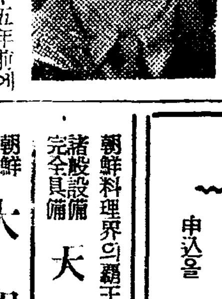


氏는 東京明治學院을 卒業한後 新潟醫科專門學校를 大正七年에 卒業하고 이여서 母校에서 硏究를 거듭하다가 學士位를어더 朝鮮에 歸還하야 北朝鮮에서 氏의名聲은 實로 藉藉하얏스며 昭和九年 鐵原驛前에 鐵道病院을 開設하야 鐵原醫療界에 功獻을끼치고잇다 氏는鐵原醫療界를떠나 鐵原社會發展을 爲하야 큰뜻함이잇서서 멀지안흔날에 功績이 商界人기리라고 밋는바잇다 ◇寫眞은 林炳日氏

人格이卓越한 金融組合長 黃永老氏

氏는鐵原出生으로 二十餘年前에 水原農林學校를卒業하고 春川農業學校에 敎授로人才養成과 消極的에서 農村事業에改善을힘쓰다가 昭和三年에職을辭任하고 只今은 鄕土에에덴을建設하고잇다 現鐵原第二金融組合長으로 功績이크다 ◇寫眞은 黃永老氏

釀造界의成功者 兩一釀造場 黃德文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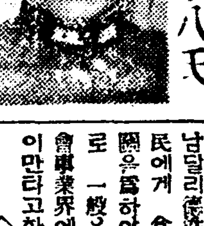


品性이沈着한氏는 十五年前에 安南으로부터 鐵原에入하야 赤手單身으로 東奔西走한結果 不少의財金을엇게되자 釀造界에발을드되여 그成功이컷섯고 氏는事理에明瞭한頭腦를 가젓슴으로社會事業에 生覺함이 크다한다。 氏는靑春義氣를 滿載하얏슴으로鐵原社會의明日에 업지못할要材로 氏도힘을다하야 物心兩面으로 鐵原社會發展에 供케다고한다 ◇寫眞은黃德文氏

商業界의重鎭 大昌商會 梁性錫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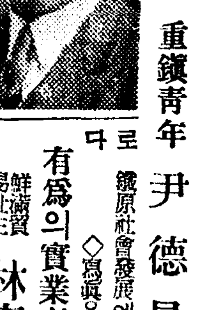
氏는今年三十三歲의 溫厚謙讓한靑年으로 中學을마치고 일즉부터 家事를돌보든中 三年前부터 自身의爲함보다 實德에目的을두고 精米業과米穀商을 經營하야 社會事業에 一片을맛드리러나감은鐵原의一般이 언제나讚頌하는바이며 氏도아끄러더한거름 社會的進出에서 目的을 達하겟다고 말하는바다 ◇寫眞은 梁性錫氏

性格이快活한 上坂宇八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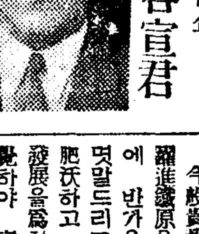
大正三年에 氏가鐵原에移住하야 運送界의開拓者로 學校建設과諸般施設에 氏의땀이석기지안은것이업슬만치性格그대로 活動하얏스며大正十年以來 消防組頭로 于今것公職으로는 邑會議員을비롯하야氏의參加치안은곳이별노업다 現在驛前에서 百餘職工을다리고製絲工場을經營하는一方昭和十一年二月부터 金剛택시ー自動車部를 獨擔으로 잘經營하고잇다 ◇寫眞은 上坂宇八氏

商界最高權威者 重鎭靑年 尹德昊氏



鐵原의 財界와 商界의 主人을말하라면 서슴업시 氏를 擇할것이다 精銳한 頭腦와 溫着하고 事務의 理解力이 豐富한心情은 자못남다른好感을 他人에게주며 鐵原部內外商界를 비롯하야 大小事가 氏의手腕을 通過치안코는 付論치못하게되엿어만흔바 恒常私利를 讓하고 公益에 提供함이 氏의 特徵으로積極的 鐵原社會를 奉進함에 對하야는 누구나 敬頌치안는이가업다 氏는 當年三十三歲의 靑年으로將來鐵原發展의節調와 鍵을가지고잇다 大正六年에鐵原公普를卒業하고 이여서京城善隣商業學校를 優秀한成績으로卒業한後即時商界로投身하야多大한 經驗을엇고 昭和四年에鐵原運輸株式會社取締役으로 被選됨을 비롯하야 現邑會議員江原道北部穀物協會長 仁川丸仁穀物協會常任評議員 中央水組評議員으로鐵原 敎育事業에도 重任을擔當한것은氏가안이고는보기드문일이다 (寫眞은 尹德昊氏)

有爲의實業靑年 鮮滿貿易社主 林容宣君



君이 長湖院公立普通學校를優等으로卒業한後 鐵原으로달려와 單獨으로實業界에鍛鍊을바다 確實한實力을拾得한君은비로소昭和五年에 鮮滿貿易社를開業하고 精米와米穀貿易에 힘을써서 今日에는 實業界의成功者일뿐만아니라그溫恭한 性品은 大衆을自由로움직이는 美容靑年으로 事業으로도 鐵原社會에업지못할人物이다 ◇寫眞은 林容宣氏

寅目面有功靑年 韓奎龍氏

氏는當年二十八歲의 靑年으로 남달리德性이厚하야 每年面內貧民에게 食糧을供給하며 敎育機關을爲하야 特志를가지고잇슴으로 一般은 寅目面에업지못할社會事業界에 有功靑年이라고稱頌이만타고한다 ◇寫眞은 韓奎龍氏

◇東州俱樂部

本部는 年前에 李丙勳博士가 鐵原道立醫院外科科長으로오자 氏의 힘으로 鐵原社界運動熱을 북돗기爲하야 組織한것으로 鐵原郡의運動熱을 培養하고잇는바 氏의功績은 永遠히사러잇다 ◇寫眞…李丙勳博士

社會發展을爲해 積極的活動을 大西鐵原署長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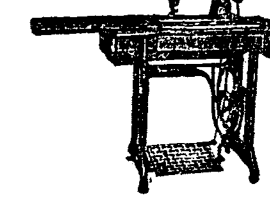
今般貴報鐵原支局에서 前無의躍進鐵原을 世上에 紹介하게됨에 반가움을마지안흐며 이어서몃말드리고자한다 鐵原은地理가肥沃하고 人質이順和하야 將來發展을爲하는 勤鬪의 適地라生覺하야 官民相互握手하야 社會發展을爲하야 盡力하야주기를一般에게빌며 自身도이를爲하야서는 힘자라는곳까지 利用되고힘쓸러인바 願하는바는 靑年들이버리고 積極的活動에 各自扶助振興을 達함에잇다고말하고자한다 ◇寫眞은 大西署長

鐵原邑內 綢緞布木 和洋雜貨 鐵原婦人商會 主 金學彬 電話五一番

鐵原驛前 精米 穀物 貿易 共益商會 電話二〇〇番

鐵原酒造株式會社

プラザミシン機械
▼職業用九五種(シンガー百三十三種과同)
▼十五種八三型家庭用及職業用
▼十五種八三型電氣ミシン
▼十五種客室用ミシン
◎最新式優良裁縫機械新改良品
◎一生間使用離貨保證
◎國產品에도選擇이第一必要
至急 道內代理店募集
申込所 江原道鐵原邑 エスミシン商會
世界的으로 工業技術의 最高峰을 證明하는 優良無比 斷一國產品 ◎印プラザーミシン本品販路의 將來를 生覺하시는 貿商手는 至急江原道內各郡市代理店 申込을 要望함



朝鮮料理界의覇王 諸般設備完全具備 大壽閣
鐵原邑 高琮權
朝鮮料理 大和館 主 盧俊傑
江原繩叺株式會社
江原線鐵原邑 藥種商 協成堂藥房 申翼澈
殖產銀行鐵原支店
日本生命保險鐵原支所 支所長 辛稷默
鐵原邑內 綢緞布木商 進興商店